



윤석열 대통령,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면담

한-NATO 협력 제도화, 정보 공유 확대, 사이버 공조 강화

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빌뉴스 현지시각 7월 11일 오전 '엔스 스톨텐베르크(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NATO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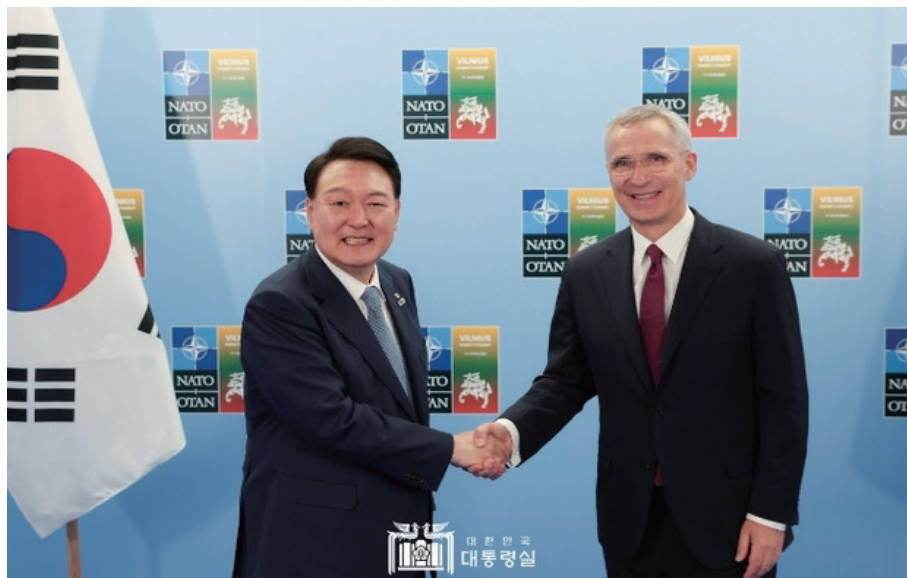
윤 대통령은 한국과 NATO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협력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양측은 면담 모두에 이번 NATO 정상회의 계기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이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ITPP 체계를 양측간 협력을 보다 제도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NATO와 정보공유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인태 지역의 사이버 보안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 설치 및 국제 사이버 훈련 개최 구상을 설명하고, 한국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와 NATO의 사이버방위 협력센터(CCDCOE)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아시아 최초(2022)로 NATO 사이버방위 협력센터에 가입한 한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초국경적 위협인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양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2014년부터 NATO를 이끌어온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의 리더십을 평가했으며,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NATO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

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광수/기자

경북 대표브랜드 '경북PRIDE(프라이드)기업' 모집

발전가능성 갖춘 6개사 최종선정,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

경북도는 7월 10일부터 한 달간 2023년도 경북PRIDE기업 신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북PRIDE기업 지원사업'은 발전 가능성을 갖춘 우수 기업을 발굴·지원해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본사와 공장이 경북에 소재한 2022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중소 제조기업 또는 본사가 경북에 소재한 2022년도 매출액 30억원 이상의 지식기반 중소기업이다.

경북PRIDE기업으로 선정되면 △R&D 역량 강화 △글로벌 우수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지속가능한 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구조 혁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경상북도 정책자금인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용 시 우대지원을 받

을 수 있다.

경북도는 신청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역량, 지속성장 전략, 재무건전성, 기술력, 글로벌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개사 정도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경북PRIDE기업으로의 선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8월 9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경북PRIDE기업 선정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각 분야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성장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지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기도 김동연지사, 집중호우에 '수해 예방 총력' 특별 지시. 경기도, 오후 1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해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을 담은 특별 지시사항을 시군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11일 오전 8시에 가동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초기대응 단계를 오후 1시부터 비상 1단계로 격상한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시군 등에 전파한 공문을 통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대응체계

선제 가동 ▲반지하주택 등 침수 발생 대비 수방 자재 사전 설치, 취약계층 안전관리 철저 ▲지반 약화, 토양 함수비 증가로 토사유출, 옹벽 붕괴 등 피해에 대비한 예찰·점검 강화 ▲침수 우려되는 문치주차장, 저지대 도로 등 사전 통제 ▲수해복구 사업장 응급조치 실시 등을 지시했다.

경기도에서는 1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3시까지 강수가 예보됐으며, 이

들간 예상 강수량은 50~120mm다. 이날 오전 8시 30분 안산 등 15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이날 오전 9시 20분 이천과 여주에 호우경보가 각각 발효됐다.

경기도는 오전에 시작된 강수로 초기 대응 했지만, 그동안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지는 등 호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에 들어간다.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하는 비상 1단계에

서는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총 17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시 현황을 파악한다. 도는 기상 상황에 따라 비상 대응 단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10일 오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집중호우 대비 도·시군 점검 회의를 열고 인명 피해 발생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외 반지하 등 침수 방지시설 신속 설치 및 미설치 가구 임시물막이판·모래주머니 등 대응체계 구축, 안전 취약계층 1대1 대피 전담 공무원 배정 등도 했다.

최만식/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오세훈 서울시장·김동연 경기도지사, 수도권 현안과제 공동해결 나선다

수도권 주요현안 대응의 추진력과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 기대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폐기물 처리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수도권 공동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오후 수원 도담소에서 만나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하나의 공동생활권을 공감하고, 3개 시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3개 시도는 수도권 공동현안 10개 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10개 공동과제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철도현안 해결 및 수도권 간선도로망 사업 추진, 경인선·경부선 지하화, 광역버스 친환경차량 도입 및 광역버스 노선확충·심야버스 확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국제스포츠·국제기구 행사 상호 지원, 경인아라뱃길 선박운항 활성화·서해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관

광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 대규모 재난대비 공조 강화, 그 밖의 협력분야 및 협약내용의 변경 등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등이다.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정착 4차 합의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협력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속 완공 및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등 철도현안 해결과 수도권 간선 도로망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국제스포츠 및 국제기구 행사에 상호 지원하며, 시설 공동 활용, 공동마케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수상이용 선박 운항 활성화와 서해뱃길을 복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도 협력한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7월 김포 마리나선착장에서 첫 만남을 시작으로 9월 인천 월미도, 올해 2월 서울 노들섬 등 총 3차례의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현안에 대해 지역·분야 구분 없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고, 이번 협약도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3개 시도는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수도권 3개 시도 만남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만큼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많다는 뜻이다. '오직 국민, 오직 나라'라는 대명제에 공감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렇게 돼야 인천은 물론 서울, 경기도 주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해법과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세 번의 만남 후에 공동업무협약 체결이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왔다. 앞으로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 불합리한 수도권 역사별 규제 개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상호 지원 협조체계 구축 등 3개 시도는 실질적인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광역적인 과제는 정책을 수립할 때 임의로 설정된 경계선을 따라 나눠서 생각하면 해결하기 어렵지만, '수도권 주민 불편 해소와 행복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3개 시도가 자주 만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 간다면, 아무리 복잡한 과제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주민 모두가 행복한 광역도시를 만들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봉화군 (재) 봉화축제관광재단

봉화로 COOL한 여행 — 은어와 HOT한 만남!

2023 07.29 SAT — 08.06 SUN

봉화군 봉화읍 내성천 일원

친환경 양수발전소 유치 3만 주민 모두의 꿈과 희망을 담아 간절히 소망합니다!

송도호서울시의원, “서울시민 한분 한분이 저의 길잡이”

HCN 시사 프로그램 ‘공금해설’ 출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HCN 시사 프로그램 ‘공금해설’에 출연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로 서울시 공공예식장 개발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정책을 제안한 계기와 어떤 공간들이 개발되고, 어떻게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세한 정책 소개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제316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이어갔고, 송 위원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초기대응과 신속한 대피를 위해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풍수해 예방을 위한 서울시 침수 예·경보제 및 동행 파트너에 대한

추진 현황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전기차·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관련 서울시 현황, 화재의 위험성, 대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송 위원장의 지역구인 관악구 봉천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도 짧게 의견을 밝혔고, “서울시민 한분 한분이 저의 실질적인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 저 송도호가 서울시민의 동행 파트너이자 안전망이 되어드리겠다.”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HCN 공금해설 ‘송도호 서울시의원 편’은 오는 14일 오후 3시에 방영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전남도의회 차영수 도의원, 의회 차원의 ‘ESG 실천 조례’ 전국 첫 발의

기후 변화에 따른 1회용품 안쓰기, 재활용 분리수거 등 실천 나서

전남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사상 처음으로 ESG 실천 조례를 제정한다.

전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차영수 의원(의회운영위원장, 강진)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을 의결했다.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3가지 주요 기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물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친환경, 탄소중립 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더욱 높아지면서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과거와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도민을 상

대려 하는 우리 전남도의회가 스스로 나서 의회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SG 실천이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전국적으로 사회 전반 분야로 확산되면서 공공기관으로서는 전남도청을 비롯한 24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나 지방의회로서는 전남도의회가 최초다.

전남도의회는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1회용품 안쓰기 외에도 탄소중립운영제도 가입과 청사 전체 소등의 날 운영, 복지기동대 활동, 전화친절도 향상 등 21가지 지표를 설정해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차 의원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경제와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보다 나은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해 현재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더욱 좋은 삶을 누릴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 이의 실천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4월 도의원, 사무처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의회의 사회·윤리적 가치 최우선 실천을 다짐하는 ESG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박종배/기자

경기도의회 이홍근 도의원, ‘탄소중립 실현’ 조례 손본다

11일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의원 연구단체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1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홍근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은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경기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회장인 이홍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박진영, 신미숙, 오지훈, 이동현, 이영주, 임창휘, 전자영, 정승현, 조미자 의원과 연구수행자인 사단법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 등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시·군 및 타 지자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사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이 소장은 “경기도 조례를 중심으로 자치법규의 전반적 현황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조례 제·개정 방향과 실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탄소중립 관련 조례의 해의 사례, 정책·사업적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시민단체와의 정책협의, 경기도청 등

행정부서와의 협력 방안 등이 연구에 포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5개월여간 진행될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용역은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한 정책영역별 탄소중립과의 정합성 분석 및 평가,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 방향과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최만식/기자

경남도의회 조영명 의원, 경남 출토유물 지역의 품으로 되돌리는데 경남도와 경남도의회 힘 보태자

조영명 의원, 제4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영명(창원13·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에서 출토된 유물을 경남 지역사회가 관리하고 연구하며 우선적으로 향유할 권리를 확보하는 문화재 자치 물꼬를 트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기원전 한 반도 문자사용을 추정할 수 있는 창원 다호리 출토 붓과 5세기 가야인들의 실생활을 가능할 수 있는 김해 출토 도기 인물형별잔을 언급하며 ‘두 유물 모두 지역의 역사성을 함의한 대표 유물임에도 지역사회가 유물을 보유하지도 감상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창원 다호리 출토 붓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김해 출토 도기 인물형별잔은 국립경주박물관에 각각 보관되어 있다.

조 의원은 또 거창에서 출토된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이 경매에 나와 유찰된 사례를 언급하며 “거창에서 출토된 보물이 미술시장을 전전할 위기에 놓일 뻔 한 이 일을 계기로 거창군 의회는 거창에서 타 지역으로 반출된 보물급 문화재 환수 운동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외에도 도기 인물형별

잔을 되찾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건의문을 채택한 김해시의회와 동아대 학교로부터 금조총 유물을 되찾기 위해 노력 중인 양산시의회와 양산시립미술관 등 도내 타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지역 출토유물 되찾기’ 움직임에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도 힘을 보태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경남에서 출토된 유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연구할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해 타 지역으로 유물을 떠나보내던 시절은 지나갔다. 지역 공립박물관 건립과 학예인력 확보를 통해 타·도로 반출된 각 지역의 유물을 제자리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남에서 타·도로 반출된 유물은 적게는 수만, 많게는 수십만 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경남의 문화유산을 지역사회의 품으로 되돌릴 때이다”고 강조했다.

장재현/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반복되는 광주 침수피해...적극적인 대처 필요”

백운-화정-농성 ‘극락천 배수구역’ 침수피해 해마다 반복



대규모 예산투입에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광주지역 침수피해와 관련, 광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2차 광주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 안건을 심의했다. 박필순 광주시의원은 이 자리에서 “백운광장부터 화정동, 농성동을 거치는 극락천-운천지 배수구역의 침수피해가 올해도 발생했다”며 “예산을 투입하고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도 해마다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는 대수도 배수터널 등 대책을 제시했지만,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추진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면서 “특히 공사기간만

6~7년 걸리는 상황에서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당장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방법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며 “그 후에 대수도 배수터널을 통해 관로를 키우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10년마다 수립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박필순 의원은 이와 관련 △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을 재고 △정비사업 환경영향 고려 등을 요구했다.

김병수/기자

광진구의회 자율방범대 임원단과 간담회 가져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구의회 브리핑실에서 ‘자율방범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동길 부위원장, 전은혜, 김상배, 김상희, 고상순, 서민우, 최일환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광진구 자율방범연합회 임원단 및 광진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난 4월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 업무가 일부 경찰서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 지원체제 및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자율방범연합회 임원단은 자율방범연합회 방범 초소 이전, 근무자 피복비 및



운영비 부족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광진구청 관계자는 광진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이 안정된 체계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업무가 재정비하는 과도기에 있다. 이번 간담회에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강성원/기자

인천시의회, 인천 교통환경 개선 등 현안과제 논의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민연합과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민연합 6개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통환경 개선 및 인천고등법원 유치 등 현안 과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식 의장과 이용창 시의원(국힘, 서구2)을 비롯해 검암리조트시티연합 이시용 대표, 청라시민연합 박흥주 부대표, 검단원당 지구연합 주경숙 회장, 영종시민연합

박관희 대표, 인천시민운동연합 심영금 상임대표, 인천시민연합 윤창민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고등법원 유치의 건, 인천공항발 GTX-D(GTX-D-Y차) 필요성,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연장 필요성 및 인천시안 요금, 서북부권 교통개선을 위한 을림피코도 버스전용차로 운영 건의,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확정에 대

한 건의, 서울 7호선 정기개통 요청 및 인천 전철의 주요 교통현안에 대한 시의회 TF구성 요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허식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청취했으며, 시민단체가 제시한 6개 의제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협력 해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각 대표들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김중남/기자



이용창 의원 또한 “오늘 논의했던 의제들이 대부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들이고, 우리 시의 대표 현안 만큼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박영인, 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식, 임직원: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홍신에이스트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하반기 100억원 용자 지원

7.19~7.25 구청에서 현장접수 실시...0.8% 저금리로 법인 2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까지 지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100억 규모의 용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구는 올해 300억 규모의 용자지원 사업을 추진해 상반기에 200억원, 하반기에 100억원으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319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고,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용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이다. 연 0.8%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제·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 용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19일부터 25일까지이고, 희망하는 업체는 용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용자접수처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할 수 있다.

조성영 강남구청장은 "지난 상반기에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하반기 용자 지원이 도움이 될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금천구는 7월 10일 독산4동 주민자치회가 전남 해남군 화산면 주민자치위원회와 독산4동 주민센터에서 도농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산4동과 화산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소통하고 협력해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상생협력을 이루기 위해 마련했다.

독산4동장, 화산면장, 각 주민자치회(위원장, 위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 간 사업을 발표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마을 자원조사, 꽃메 협동조합설립, 청소년

금천구 독산4동-해남군 화산면, 주민자치회 자매결연 체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꽃메 문해학교 운영 등 자치활동 및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주민자치박람회 참여 등 주민자치 활동에 필요한 경험과 요령을 나누었다.

독산4동 주민자치회는 금천형 주민자치회 실행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과 비전을 공유하고, 주민자치 공론장 분과 운영, 의제개발을 위해 진행했던 과정을 소개했다.

제갈무상 독산4동 주민자치회장은 "해남군 화산면과 도농교류 협력을 맺게 된 것을 환영하며, 독산4동 주민자치회와 상생 발전하길 바란다"라며, "더불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화산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대표 기구"라며,

"행복한 금천형 주민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2023 하반기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
7. 19.(수) - 7. 25.(화)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공고 시작일 기준)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 운영 여건규정에 의한 탈모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필수

지원대상
- 중소기업 육성기금용 지원 사업자 - 용자신청 자격제외(제조업, 서비스업 제외)
- 국제 및 지방세 체납 사업자 - 구 외 강남구 용자지원 제한업종 해당 사업자(공공기관 제외)
- 휴업 또는 폐업 사업자 * 운영 여건: 강남구 운영여건지수 - 영업·영업 - 고·중·저급 - 영업·영업

지원조건
- 용자등록: 법인사업자 2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5천만원 이내
- 용자규모: 연 0.8%(고금리) 이하
- 신청기간: 2023년 7월 19(수) ~ 7월 25(화)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강남구청 본관 지하1층 용자접수처
-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지원절차
1. 신청접수 → 2. 심사(서류 검토) → 3. 심사결과 통보 → 4. 용자선정
- 신청접수: 7월 19(수) ~ 7월 25(화) 오전 9시 ~ 오후 5시
- 심사: 7월 26(수) ~ 7월 27(목) 오전 9시 ~ 오후 5시
- 심사결과 통보: 7월 28(금) ~ 7월 29(토) 오전 9시 ~ 오후 5시
- 용자선정: 7월 30(일) ~ 7월 31(월) 오전 9시 ~ 오후 5시

개인사업자
신청접수: 7월 19(수) ~ 7월 25(화) 오전 9시 ~ 오후 5시
신청접수 후 신용보증서(신용보증서) 필수
신청접수 후 신용보증서(신용보증서) 필수

서초구, 재난에 관한 과학적 분석 및 대응책 마련으로 더 안전해진다

재난 취약요소와 안전관리 전반 살피는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컨설팅' 추진

서울 서초구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이 빈번해지고 사회재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컨설팅'을 추진하여 재난 전문가와 함께 관내 재난 취약요소를 진단하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살필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관리체계 현황 분석 ▲재난관리 실태 진단 및 문제점 도출 ▲재난관리 역량강화 방안 마련 등이다.

재난 전문가들이 다양한 안전관련 통계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구 재난안전체계 특성과 여건을 조사하고, 재난과 사고를 초래하는 위험요소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난관리 실태와 위기관리 대응능력 수준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컨설팅에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풍부한 연구경험이 있는 재난 전문가가 참여한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구는 재난안전관리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남역 일대를 대상으로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시뮬레이션 용역'을 시행한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지역에 대해 다양한 상황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위험구간을 예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일대의 보행량, 교통량, 공간정보를 수집하고 특히 더 많은 인파가 몰리는 혼잡일, 주말의 유동인구를 상황별로 분석하여 위험한 구간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용역결과로 나온 위험구간에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지능형 CCTV' 실시간 혼잡도 영상 분석 시스템 구축 ▲경사로 정비 등 도로 ▲보행 환경 개선 ▲로그젝터, 안내표지 등 안전시설 보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지능형 CCTV 7대를 설치하여 강남역 일대의 혼잡도를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실시간 분석하고, 용역을 통해 마련한 혼잡도 단계에 따라 위험상황 시 CCTV스피커(15개소)를 통해 경고방송을 송출한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안전사고 예방 위한 관리체계 개선 계획 ▲상황 신속전파 시스템 강화 ▲사고유형별 대응방안 구축 ▲전직민 대상 안전역량 강화교육 ▲주민, 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점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재난대응 안전훈련 강화 등 안전의식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전성수 구청장은 "강남역 일대는 유동인구가 많아 인파가 몰릴 경우 순간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구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인파사고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홍수/기자

'제25회 은평구청장기 태권도대회' 성황리 개최

지난 9일 구민체육센터서 개최...1천5백여명 참가



은평구는 지난 9일 은평구민체육센터 대체육관에서 '제25회 은평구청장기 태권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은평구 태권도 축제의 장에는 대회 참가자, 응원 가족 등 약 1,500 명이 참여하며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대회는

은평구태권도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은평구와 은평구체육회가 후원했다.

대회는 품새(개인, 단체, 선수, 페어)와 태권체조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유아부터 장년부까지 그동안 갈고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쳐내면서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개회식에는 주요 내외빈을 비롯해 멀리서 대회 관람을 온 장영수 메사추세츠 보스턴 한인회장과 정제형 보스턴 태권도협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은평구 태권도시범단' 선수들의 태권체조와 시범을 통해 뛰어난 기량의 운동성과 태권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면

서 대회장을 찾은 선수들과 학부모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한 몸에 받았다.

김동복 태권도협회장은 "우수한 성적을 떠나 그동안 쌓아왔던 기량을 오늘 한꺼번에 맘껏 발휘하는 기회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낙홍 체육회장은 "종목별 동호회에서 체육 인재 양성에 힘을 쏟는데 특히 태권도 경우 어려서부터 엘리트 태권도인의 면모가 많이 엿보여 매우 자랑스럽다"고 했다.

김기경 은평구청장은 "전 세계로 뻗어나간 우리 태권도의 자긍심과 넓은 포용력을 보여주는 대회였다"며 "오늘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모두가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었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송파구, '나눔발전소' 운영해 취약계층에 고효율 가전제품 교체, LED조명 교체 등 에너지복지 실현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 69가구 및 복지시설 14개소에 에어컨 등 고효율가전제품 집중 지원

송파구가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익금으로 관내 에너지취약계층 69가구 및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14개소에 5천 5백만 원 상당의 고효율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에너지복지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구는 '송파나눔발전소(총 5호기)' 운영을 통해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발생된 전기를 판매하는 수익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겨울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한 에너지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효율가전제품 교체 지원 사업에 집중했다. 구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시설의 노후 가전제품을 고효율가전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

제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이에 구는 지난 4월,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 69가구 및 복지시설 14개소에 에어컨 37대, 세탁기 23대, 냉장고 17대, 공기정정기 9대 등 총 5천 5백만 원 상당의 고효율 가전제품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에어컨과 냉장고를 지원받은 관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도담하우스의 한 입주자는 "더위에 취약한 신생아들이 힘들어할까 걱정스러운 마음이었었는데, 새 에어컨 덕분에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를 전했다. 또, 세탁기를 지원받은 금문 어린이집에서는 "빨랫감이 많은 여름에 아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기존보다 큰 용량의 세탁기 덕분에 빨래가 수월해졌다"고 만족감을 전했다.

이밖에도 구는 올해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익금으로 ▲에너지 취약가구 공공요금 체납금 지원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어린이집 쿨루프 설치 등 총 2억 4천여만 원 상당의 다양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비영리 사단법인(사)에너지나눔과평화와 공동으로 2009년부터 전남 고흥에 1호, 경북 의성에 2호, 송파구 자원순환공원에 3·4호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구 자체 계획으로 송파구 신천빛울펄프장에 5호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환경을 살리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는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에 전달한 고효율 가전제품이 여름 무더위를



앞두고 걱정하는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세심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동시에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처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홍수/기자

무더위도 재난! 관악구와 함께 무더위 탈출하세요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해 다방면의 지원정책 추진

관악구가 지속되는 고온의 날씨 속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열질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2020년 1,078명에서 2022년 1,564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구는 올해 주민들의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먼저, 구는 지난 6월까지 더위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른이 이용하는 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총 1억 1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 '그린커티'와 '쿨루프(Cool Roof)'를 설치해 쾌적하고 시원한 실내 환경을 조성했다.

'그린커티'는 덩굴식물이 건물 외벽을 타고 커튼 형태로 자라나 건물을 녹화하는 것으로 여름철 실내 온도를 5°C 가까이 낮춘다. '쿨루프'는 태양광 반사 기능이 있는 특수 페인트를 옥상에 칠해 실

내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여름철 냉방에너지를 약 20%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운영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거나 고지기를 위해 차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포함해 ▲1인 세대 14만 9,800원 ▲2인 세대 20만 5,700원 ▲3인 세대 29만 2,500원 ▲4인 이상 세대 37만 9,600원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 요금에서 차감되며, 희망 세대의 경우 최대 4만 5천 원까지 동절기 바우처를 담겨줄 수 있다. 신청 대상,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어르신 무더위 쉼터' 140개소(▲경로당 110개소 ▲동 주민센터 21개소 ▲복지관 7개소 ▲안전 속소 2개소)를 마련, '일반 쉼터'(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와 ▲폭염특보 발령 시 연장 운영하는 '연장 쉼터'(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일·주말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운영한다.

특히, 에어컨이 없는 쪽방, 옥탑방, 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을 위해 관내 호텔 2개소를 안전 속소로 지정, 평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야간 쉼터'로 운영한다.

'일반 쉼터'와 '연장 쉼터'는 어르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야간 쉼터'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한 후 이용

할 수 있다.

구는 폭염대비 행정적, 재정적 지원 외에 문화와 여가를 위한 지원 사격에도 나서고 있다. 7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시원한 물놀이로 주민들의 더위를 식혀줄 예정이다.

현재 ▲별빛내린천 물놀이장(8월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관악산 신림계곡 물놀이장(8월 27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구는 1천여 명의 '재난도우미' 사업을 운영해 폭염 특보 발효 시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전력량을 확인하는 '스마트플러그 안부확인 서비스', 인공지능 전화(AI 콜) '뚝뚝 안부확인 서비스' 등을 운영, 주민들의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경기도, “산재 사고사망” 26년까지 OECD 수준으로 감축목표 수립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고용노동부 주최 행사에서 첫 경기도 종합계획 소개

경기도가 노동자 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 만인율을 0.51에서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할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주최한 산업 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은 감축목표를 밝혔다.

오 부지사는 “산업현장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으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은 경기도의 책무”라며 “건설과 제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지원대책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 책무를 두고 있다. 도는 개정 이전부터 산재 예방 조례를 제정했으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계획은 현재 경기도의 사고 만인율 0.51‰(퍼밀리아드)를 2026년까지 0.29‰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 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은 감축목표를 밝혔다. 2014년(만인율은 0.58) 이후 줄곧 0.4~0.5 수준(사망자 800~900명대)에 정체를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에 비하면 함참 높은 수치다.

경기도가 나서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배경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제도가 시행됐는데도 경기도에서만 매년 200명 이상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데 있다. 사고 사망의 70%가량이 건설과 제조에서 발생하는데, 경기도는 지금도 도시 개발에 따

른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 많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다는 특성이 있다.

계획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의 예방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문인력 확보, 시설개선 등 안전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의 위험요인 분석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우수기업 인증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촘촘한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동안 사고 발생 비율이 낮지 않은데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제외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도는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함께 안



전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시군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고, 2024년까지는 도내 모든 시군에 산재 예방 조례가 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제조 분야에 집중해 지도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체계를 점검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안착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산업안전 체계 구축은 민선8기 공약이기도 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내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산업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교육, 점검 등 예방 조치의 적극 이행을 지시한 바 있다.

최만식/기자

용인특례시, “습하고 무더운 여름, 보양식 드시고 힘내세요”

이마트 7개점 2000만원 상당의 김치·보양식 지원, 주민단체 보양식 나눔 손길도 이어져

“습하고 무더운 여름, 보양식 드시고 힘내세요”

용인특례시 곳곳에서 초복을 맞아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는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다.

시는 지난 11일 ‘희망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이 관내 취약계층 400가구에 2000만원 상당의 보양식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양식 꾸러미 안에는 김치 4종과 보양식 2종이 담겼다.

희망나눔 프로젝트는 시와 용인지역 이마트 7개 지점(용인·동백·흥덕·죽전·보라·수지·TR구상)이 지난 2014년부터 협약을 맺고 지역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마트 7개 점은 지난해까지 총 14억 1591만원 상당의 물품과 성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연말까지 약 2억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관내 주민 단체들도 보양식 나눔에 동참했다.

기흥구 상갈동 주민자치위원회는 11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만든 삼계탕과 김치, 단팥빵 등으로 보양식 꾸러미를 구성해 저소득 100가구에 전달했다. 단팥빵은 상갈동 소재 커피전문점 마나나에서 지원했다.

신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저소득 어르신 100가구에 간면 삼계탕 2팩, 밀반찬 2종, 열무김치, 건강 음료 등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건강음료는

한국아쿠르트 신갈점에서 후원했다.

기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 홀로 어르신 30가구에 직접 만든 삼계탕을 전달했고, 보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 20가구에 갈비탕, 삼계탕, 꼬리곰탕, 김치 등으로 구성된 보양식 꾸러미를 지원했다.

수지구 풍덕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 어르신 30가구에 삼계탕과 과일 등을 담은 꾸러미를 전달했다. 삼계탕과 과일은 수지환경센터가 기탁한 후원금으로 마련했다.

풍덕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일 고시원이나 원룸텔에서 홀로 지내는 주거취약계층 20가구에 삼계탕과 갈비탕, 밀반찬 등으로 구성된 보양식 꾸러미를 전달했다.

죽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이날 홀로 어르신 20가구에 보양식을 드릴 수 있도록 3만원 상당의 외식상품권을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역삼봉사회는 지난 8일 홀로 어르신 40가구에 삼계탕, 김치, 건강음료, 과일 등이 들어있는 보양식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보양식 꾸러미는 봉사회 회원들이 모은 회비로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무더겁 습한 날씨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려는 손길이 이어졌다”며 “취약계층이 무사히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화성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상반기 안전보건 분야 점검 완료



화성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에 대한 상반기 안전

보건 분야 의무이행 사항을 지난 3월 약 3개월간 점검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어린이집, 도서관, 복지관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 건축물 101개소, 교량, 터널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226개소, 원료제조물 관리시설 15개소 등 총 34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는 시설 내·외부 유해 위험요인 점검

평가,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비상 대비 훈련 및 평가 등에 초점을 맞춰 점검을 실시했으며, 미흡한 사항들은 즉시 보완 조치하는 등 향후 더욱 촘촘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권 화성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시설관리자 교육과 상·하반기 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종합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분야 업무처리절차 매뉴얼을 개정 발간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양시현/기자



성남시 '세계태권도 한마당' 전야제·개회식 공연 풍성

홍보대사 나태주, 이우리, 이동준 등 총출동

‘2023 성남 세계태권도 한마당 (7.21~24)’ 유치에 성공한 성남시가 각종 공연이 풍성한 대회 전야제와 개회식을 열어 분위기를 띄우기에 나섰다.

시는 오는 7월 20일 오후 7시 성남 실내체육관(중원구 성남동)에서 연예인 등을 초청해 총 4000명 참여 규모의 세계태권도한마당 전야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배우 이상인 씨가 진행을 맡는 전야제에는 세계태권도한마당 홍보대사로 위촉된 나태주(태권 트로트 가수), 이우리(배우), 이동준(전 국가 대표 태권도 선수이자 배우) 씨가 총출동해 각종 공연을 펼친다.

태권 퍼포먼스, 댄스, 콜라보(협업) 공연 등으로 대회 분위기를 달군다. 행사를 주관하는 조직위원회(위원장 임동분)는 전야제 입장객에게 선착순으로 휴대폰 보조배터리 3000개를 기념품으로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개회식 공연도 다양하다.

대회 첫날인 7월 21일 오후 4시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은 아나운서 조우중, 김경미가 공동 진행을

맡는다.

이날 관중만 5000명 참여를 예상하는 가운데 트로트 가수 김태연 양과 타악기 연주가 라퍼커션, 8인조 댄스 그룹 원밀리언, 국가원의 태권도 시범단 등이 출연해 퓨전 애국가, K팝 군무 등으로 공연 무대를 꾸민다.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는 오는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성남실내체육관, 성남스포츠펀센터(중원구 성남동) 등에서 열린다.

55개국 4500명의 태권도인이 참여하는 규모다.

각종 격파와 창작 품새, 태권체조 등 13개 종목 73개 부문에서 남녀 선수들이 기량을 펼친다.

시는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 개최로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1992년 처음 열린 세계태권도 한마당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년(2020~2022년)간 열리지 않았다가 이번에 성남에서 대회를 열게 됐다.

이성윤/기자



고양시, 도시계획 새판 짬다...경제자유구역·노후도시 반영

이동환 시장 “경제자유구역, 노후계획도시, 원당재창조 담아...미래자족도시 밑그림 그리겠다”

02 여건분석

2.4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고양특례시가 미래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을 짬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1기 신도시와 노후도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에는 첨단산업 육성의 핵심 전략인 경제자유구역, 원당역세권 개발을 통한 일자리 거점 조성을 추진하는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등 핵심사업을 반영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추구하는 도시의 미래를 제시하는 핵심적인 정책과 전략을 담는다”며 “이번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노후계획도시,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등 민선 8기 핵심 정책의 기틀을 다지고 미래자족도시로 도약하는 고양시의 밑그림을 그리겠다”고 전했다.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반영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

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지난 2021년 12월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 승인을 받았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1기 신도시와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변경 필요성이 높아졌다.

시는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하여 민선 8기 도시정책 및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여건,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인구계획·시기화 예정용지 등도 포함한다.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에는 ▲1기 신도시 및 노후도시심지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공간구조와 인구계획 ▲경제자유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기본 계획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민선8기 주요도시정책 ▲탄현·대하 등 군부대 이전에 따른 대규모 개발가용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인접 미개발지 구역 확장 및 인구계획 ▲비도시지역 공공·민간 개발사업 적정성 및 관리방안 검토 사항 등을 반영한다.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 예산은 올해 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다. 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오는 8월 재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고양시 시민계획단’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국토계획평가 협의회,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고양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일산, 화정·능곡 등 지구단위계획 16개 구역 재정비

시는 지난 6월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시작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은 일산 1기 신도시 등을 비롯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약 31.8km²를 대상으로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 도시기능 향상,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이다.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 용도제한, 간폐물·용출물, 최고·최저 높이

한도 등을 포함하여 건축 및 도시개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는 1990년대 조성된 일산 신도시를 비롯해 화정·능곡지구 등에 대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행신·중산·대하·가좌 등 기존 지구와 최근 조성된 상송·원동 지구를 포함하여 고양시 전역 총 16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다. 시는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기능개선, 가로경관 향상, 법령개정,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도 인한 민원사항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GB 해제 실효공원 공공기여방안 마련...단절 토지 해제, 고도규제 완화 추진

시는 59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취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그동안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실효 도로, 공원 등에 대해 공공기여방안(15% 공공기여)을 수립했다. 49개 실효공원 부지(82개소 149,817m²), 도로 4개소, 연접시설 17개, 보행자·차량 혼용도로, 건축한계선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

시는 강매동 등 6개소에 위치한 소규모 단절 토지 18,202m²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했다. 단절토지는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 인해 단절된 3만m² 미만의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한 토지를 말한다.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에서 입안하고 경기도가 결정한다.

시는 경기도에 해제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했다.

또한 군사시설로 인해 고도규제를 받고 있는 벽제, 현천, 화정, 강매동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 고도규제를 11m에서 15m로 완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규제로 인해 제한된 시민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건축 인허가시 군사협의 제외 대상이 확대되어 허가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도시개발과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검토하여 발전방향과 주민들의 소망을 꼼꼼하게 반영해 나가겠다”며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자족도시를 현실화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이민근 안산시장, 주민자치대학서 특강... 시정 핵심 가치는 '시민'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10일 평생학습관에서 운영 중인 제1기 안산시 주민자치대학에서 '혁신으로 만들어가는 시민이 꿈꾸는 도시 안산'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산시 주민자치대학은 민선 8기 공약 사항 중 하나로, 주민자치력 향상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주민자치 리더 양성 전문 교육과정이다.

이날 6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특강에서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광역교통망 구축 ▲초지역세권 등 도시개발사업 ▲원도심 재생사업 ▲청년

정책 사업 등 시 중점 추진사업 설명과 함께 시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는 '시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민근 시장은 "주민자치 시대를 맞아 시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항상 시민과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에 개강한 주민자치대학은 오는 9월까지 매주 월요일 총 12회 강좌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학, 인문학, 디지털학 등 다양한 특강과 문화탐방으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정부/기자



인천시, 백신 항체 검사 강화해 구제역 청정지역 지킨다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이후 우제류 농가한 항체 검사 실시

인천광역시시는 오는 하반기부터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항체 양성률 기준 미만인 농가를 집중관리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0일, 충북 청주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시는 관내 우제류(소, 돼지, 염소 등) 농가 중 긴급 백신접종 대상(농가 452개소, 32,385두)에 대해 100% 백신접종을 완료했고, 주요 축산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추진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에서는 2015년 3월 돼지농가(2개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9년째 비발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농가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우제류 농가에 대한 백신 항체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7월 말까지 관내 우제류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를 농장별로 1마리씩, 총 100마리 이상 검사해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개체를 출하한 농장을 방문해 추가 확인검사(16마리)를 진행한다.

또한 관내 축산농가 중 자가접종 농장은 농장별로 16마리씩을 검사해 항체 양성률 기준 미만일 경우 최종 미흡 농가로 판정에 집중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백신접종 미흡 농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흡 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 백신접종 방법,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고 올바른 백신접종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농가 교육을 병행하게 된다. 또한 백신 재접종 후 4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5월까지 관내 우제류 1,162두에 대한 항체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1,121두에서 항체가 형성(항체 양성률 96.5%)된 것을 확인했다. 하반기에는 강화된 구제역 혈청 예찰 계획에 따라 당초 목표보다 검사량을 417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취약농가를 조기에 발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김정희 시 농축산과장은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는 방역에 빈틈이 생기면 언제든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백신접종을 비롯한 농장 내·외부 소독,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차단방역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제역 백신 접종요령 등 가족전염병 방역 관리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질병특별페이지(홍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중남/기자

수원시, 중소기업에 3000억 원 규모 통큰 대출 지원... 금리는 낮춰

전국 최초로 4개 금융기관과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은행, 3개 보증기관과 협력해 관내 중소기업에 3000억 원 규모 대출자금을 지원한다. 또 대출과 보증 제도를 연계해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보증비용 지원은 확대한다.

수원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은 신

용·기술 보증제도를 연계해 대출 적용금리를 인하 받고, 추가로 금리 2%와 보증수수료 보증료율을 연 1.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대출 규모는 3년간 3000억 원이며, 기업당 대출금액은 최대 5억 원이다.

기존 수원시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은 주요 지원 대상이 제조업 등 특정 업종으로 제한돼, 비제조업 기업은 제조업 기업보다 대출금액이 적고 이자 지원율도 낮았다. 또 수원시 특례보증은 보증율을 우대해

주지만 보증수수료를 지원하진 않았다.

이번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으로 비제조업 중소기업도 제조업과 같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출과 보증을 연계해 신용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 발급과 보증비용도 지원해 중소기업의 자금 마련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형일 기업은행 전무이사,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심현구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이종배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가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기준 국내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973조 원에 육박하고, 이자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며 "수원특례시에 있는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행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으로 수원시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대폭 줄어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원시의 일자리, 기업 유치를 위해 4개 기관이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형일 기업은행 전무이사는 "수원시와 좋은 인연을 맺은 지 60년을 맞은 해에 이런 동행을 하게 돼 더 특별하고 뜻깊다"며 "금리 상승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임계치에 다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으로 수원시의 혁신기업 유치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원시가 기업 하기 더 좋은 도시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최근 국내은행 분기별 연체율이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기사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보증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여파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보증료 지원은 가뭄 속 단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현구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는 "오늘 협약으로 수원시, 기업은행, 정책보증기관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수원시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수원시의 기업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는 "수원은 미래 대한민국 산업의 두뇌 역할을 할 좋은 조건을 갖췄다"며 "이번 협약이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원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만식/기자



안양시, '2024~2028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안양시가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를 실현하고 대표 청년정책 전략을 수립한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2024~2028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 12월 처음으로 수립한 '2019~2023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제2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착수보고회를 주재해 시의원, 분야별 전문가, 지역 청년,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과 용역 방향을 공유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의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추진해온 청년정책의 객관적 성과 진단 및 발전 방향 모색 ▲지역청년의 특성에 맞는 정책 수요 도출 ▲2024~2028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및 정책 목표 설정 등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청년의 현황, 특성,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 청년정책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청년 1천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적 생활여건을 조사하고, 집단

심층면접(FGI)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청년정책 비전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와 복지지원 ▲꿈을 실현시키는 교육과 진로 지원 ▲청년의 다양한 문화·예술지원 등을 기본계획에 담아낼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정책은 안양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기성세대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에 놓인 청년의 삶을 면밀히 파악해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책 비전을 기본계획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용역에 관련 부서, 전문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19~2023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66개의 청년정책을 추진했으며, 올해에는 67개 청년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청년기에 이행해야 할 취업, 결혼, 정착 등에 맞춘 단계별 지원책에 주력한 안양시는 2019년 청년친화현정대상 종합대상, 2021년과 2022년 청년친화현정대상 정책대상, 2023년 청년친화현정대상 종합대상에 선정됐다.

신우용/기자



GOOD AIR CITY 인증도시

대한민국의 숨, 울진

대한민국이 숨쉬고 모두가 함께 숨쉬는 땅, 울진

대한민국의 숨, 울진은 동해바다의 푸른공기와 금강송의 맑은공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맑은공기 모범도시(GOOD AIR CITY 인증도시)울진을 상징합니다.

전남도-중화권, 투자수출관광 교류 확대

12일까지 '경제·관광의 날'...300만 달러 수출·관광협약



전라남도에서 만나는 새로운 비즈니스·관광의 기회
美丽全罗南道 遇见无限商机
라남도-중화권 경제·관광의 날
罗南道-中华圈经贸旅游活动日

이천일무역유한공사가 주스 90만 달러, 완도맘과 상하이한진무역유한공사는 80만 달러 규모의 미역 수출입 업무협약을 하고 전남도는 행정적 편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대응단계 완화시기를 맞아 중국 대표 여행사와 중국인 관광객 전남 유치,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중국 내 메이저급 여행사인 베이징마이투어와 상하이망고국제여행사는 전남 여행상품 개발 및 중국 내 마케팅을 추진하고 전남도는 여행상품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전남도 관광홍보를 위해 중화권

원조 한류스타인 아이돌 그룹 신화의 엔디를 전남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행사에선 해외 동포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하는 자리도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박기락 북경한국인회 회장, 서만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베이징협회장, 장종섭 (사)매한운봉길의사기념사업회 이사, 김상현 거신그룹 비서실장 등 네 명은 전남도의 발전을 위해 총 1천250만 원을 기탁했다.

김영록 지사는 기념사에서 "전남도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을 통해 세계적 관광명소로 도약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이차전지 등 최첨단 전략산업의 요충지이자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선도, 첨단기술과 결합한 미래 생명산업의 중심지인 전남에서 새로운 미래, 확실한 성공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인 잠재투자자와 중국상공회의소 대표단은 또 12일 울춘산단 등을 찾아 광양만권 투자환경 설명을 듣고 광양만권 투자 중국기업을 방문하는 등 광양만권의 탁월한 투자·경쟁환경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박종배/기자

나주시, 나주교통 노조 파업 철회... 시내버스 정상 운행

나주교통 노사 간 임금 재협상 중재 노력

전라남도 나주시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주)나주교통의 하나로 노동조합이 노사 간 임금 협상 타결로 파업을 철회했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교통 노사는 전남 임금 재협상을 통해 월 기본급 13만원 인상에 합의하며 노조에서 잠정 유보했던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나주시 시내버스 전체 노선은 정상적으로 운행된다. 이 노조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친 사측과의 임금 조정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6일 노조원 찬반 투표를 거쳐 10일부터 11일 이틀 간 파업을 통한 시내버스 노선 운행 중단을 예고한 바 있다.

노조에서는 월 기본급 15만원 인상을 요구했던 반면 사측에서는 10만원 인상을 내세우며 입장차 커 난항을 겪었다.

나주시는 파업에 대비해 지난 주말 시

내버스 파업 대책 회의를 통해 경찰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위한 중재에 나섰다.

적극적인 중재에 힘입어 노사 간 재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서 10일 예정됐던 노조 파업이 잠정 유보되기도 했다. 노조에서는 임금 재협상 결렬 시 익일(11일) 재차 파업을 예고했지만 사측과 합의점을 찾으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됐지만 적극적인 중재에 힘입어 시내버스를 정상 운행한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수요자인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해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남원시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후속조치 추진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신속 위치 확인



남원시는 관내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의 망실·훼손·표기 오류 등을 정비하기 위한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이에 대한 정비 및 추가 설치 등 후속조치를 10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전국을 가로, 세로 10m 격자형으로 나누고,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된 번호로 한글 2글자와 숫자 8글자를 조합하여 10자리로 표기돼 산악·해안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국가지점번호판 정비 및 추가 설치를 통해 국가지점번호 위치정보 등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재난·사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정보 공유 및 신속 대응으로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남원시는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를 완료하여 훼손·망실된 번호판에 대해서는 보수 정비를 진행하고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위치파악이 용이하도록 신규 60개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권혜정 민원과장은 "위급상황 발생 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를 알려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완도군, 제13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성료

'신 기후 체제 시대, 섬과 바다 세계 대전환과 지속 가능성' 주제 개최

제13회 전국 해양문화학자대회가 지난 7월 6일 완도군 신지면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센터에서 개최됐다.

전국 해양문화학자대회는 해양 및 도서 지역 문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해양 관련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도서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국립해양수산물물관 건립과 해양자원 재발견, 해양치유산업 홍보, 섬 지역 물 문제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 방향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회는 '신 기후 체제 시대 섬·바다 세계의 대전환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주제로 전국의 해양문화 학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됐다.

대회 1일 차에는 발표와 종합토론회, 2일 차에는 14개 분과 회의와 융합 토론, 해양문화치유센터에서 해양치유 체험을, 3일 차에는 고급 추무사, 이순신 기념관 등 해양문화 답사가 이뤄졌다.

신우철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 군이 국립해양수산물물관을 유치하고 오는 9월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해양치유가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문화 관련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양산업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대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수산과 해양 정책에 적극 반영

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 기후 체제 시대, 섬과 바다에 거는 기대'라는 주제로 고석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기조 발표가 있었다.

고석규 원장은 "우리나라 기존 상승이 지구 평균 온난화 속도보다 빠르며, 표층 수온 또한 세계 평균 보다 약 2.6배 빠른 것으로 나타나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앙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전하며, 그 해답인 블루카본의 최적지로 전남 지역 갯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곽유석 남도문화유산연구원 상임이사는 '국립해양수산물물관이 나아갈 방향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1위로 바다와 일상의 삶을 이어주는 수산업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국립해양수산물물관 건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해조류 및 어류 양식 등 완도 수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전시 연출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지난해 10월 국비 1,441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해양수산물물관 유치에 성공해 완도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해양수산 관련 콘텐츠 전시·체험, 연구, 교육 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대회 둘째 날에는 해양 고고학, 고대 해양사, 조선·근대 해양사, 수산업과 어촌 해양문화와 철학, 해양산업과 생태관광, 섬·해양 정책 세계와 정보고 등 14개 분과 회의가 진행됐다.

양영을/기자



함평군, 화훼농가 포장 박스 브랜드화 지원사업 실시

전남 함평군이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고급 화훼 이미지 구축과 화훼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해 '화훼 포장박스 브랜드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화훼농가 6곳에 포장박스 1,600장 제작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가별 고유 디자인 제작을 통해 포장박스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이 사업으로 포장박스 생산비가 절감돼 농가는 화훼 품질 향상에 집중하여

화훼 시장에서 상품성 경쟁력과 품질 고급화 및 지역 홍보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배농가 최병민(62세)씨는 "화훼 포장박스 지원으로 각 농가의 브랜드가 구축되고 홍보 효과가 커 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화훼농가들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명품 브랜드를 육성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생산비 절감 및 화훼 품질 향상 기대



순천시 별량면 개령이 고들빼기 마을의 또 다른 변신



순천시 별량면 개령이 고들빼기마을 '마을 승강장'이 심과 예술의 공간으로 바뀌어 화제다.

지난 3월 별량면 개령이 고들빼기마을(개령마을)이 주민이 주도하여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개령마을 주민 30여 명은 사전 회의를 통해 승강장을 어떻게 바꿀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 사례를 공부했다.

마을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마을 앞 승강장 주변에 무성하게 자란 잡풀을 정리해 절죽을 식재하고 더 이상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게 분리수거함을 설치했으며, 흔들의자를 설치해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조성했다.

또한, 낮고 어두운 승강장 벽에 지역 특산물인 고들빼기 꽃 벽화를 그려 깨끗이 단장하고, 지붕에는 친환경의 상징인 쇠뿔구리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승강장을 이색적인 포토존으로 변신시켜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특히 승강장의 변신은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참여로 총 네 번의 울력을 통해 완성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개령마을 이장은 "비록 과정은 힘들었지만 주민들과 함께 만든 작품이라 보람

되고,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잠시라도 힐링하는 모습과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에 뿌듯하다"라며 "전국에 하나뿐인 특별한 승강장이 우리 마을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별량면은 올해 배정된 사업을 내실 있게 완료하고 내년에도 보다 많은 마을이 참여하여 관내 모든 마을이 전남을 대표하는 으뜸마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쇠뿔구리 조형물은 전남 미술협회 조각분과 위원장인 배재성 작가 작품으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소식에 시민들이 1년간 무상 관람할 수 있도록 승강장 설치를 제안했고, 여기에 주민들이 대나무를 엮어 2.5미터의 쇠뿔을 만들면서 작가와 주민의 합동 작품이 탄생했다.

이승준/기자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위한 기재부 설득사업 착수

기재부 단계(7~8월)기간 도 지휘부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

전북도가 내년도 각 부처 예산안에 대한 1차 심의가 진행 중인 기재부를 찾아 전북지역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위한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전북도에 따르면 11일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기재부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 예산심핵심 라인에 차례로 만나 윤 대통령의 전북 공약사업과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예산 반영을 집중 건의했다.

먼저, 임 부지사는 새만금 지역의 투자환경 및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핵심축인 '새만금 간선도로(남북3축 도로) 건설'과 새만금 내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또 대통령 공약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대

통령 전북공약이자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 항만·공항·철도)의 완성을 위한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더불어 사업재생에너지단지과 연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주기 그린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수소차 페연료전지의 재사용 인증·평가 기반 구축을 위한 '수소차 페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농업 분야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반 농작업 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인공지능(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도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외 문화·체육분야 미래성장동력 창

출을 위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대통령 전북공약으로 올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는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사업, 전북을 한류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한 'K-문화 콘텐츠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안 반영을 건의했다.

후백제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 기반이 마련을 위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의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동학농민혁명 정신문화의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역사당 건립'의 실시설계비 반영도 요청했다.

또 바이오·신기술-혁신의로기기 분야



전도를 위해 혁신의로기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메카노바이오헬스 혁신의로기기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반영을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7~8월까지 부처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심의가 진행되는 만큼 도-시군-정치권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부예산안 최대 반영을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남출/기자

구례군 드림스타트 '섬진강 래프팅 체험' 추진

학령기 아동 대상 체력 강화 프로그램



전남 구례군은 지난 8일 드림스타트 아동 20여 명을 대상으로 섬진강 일원에서 '체력 강화 프로그램(래프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또래들과의 유대감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요원과 강사들의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래프팅 체험, 물놀이, 다이빙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아동들이 다양한 여가 문화를 체험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복지, 보육, 건강 등의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성현/기자

진도군, 감염병 예방 올바른 손씻기 교육 실시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뷰박스 스크린을 통한 직접 체험

진도군 보건소가 관내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손씻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손씻기 뷰박스와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 ▲손씻기의 필요성 ▲올바른 손씻기 6단계 ▲기침예절 교육 등으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1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어린이들은 화장실 이용 후와 음식을 먹기 전 등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는 등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실천을 위해 형광표시를 바르고 손을 씻은

후 뷰박스 스크린에 손을 넣어 세균이 얼마나 제거됐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는 "올바른 손씻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개인 위생관리와 일상 속 생활방역 수칙 준수가 한층 더 중요해졌다.

감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실천으로 호흡기 질환 20% 감소와 대부분의 감염성 질환

의 50~70%를 예방할 수 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 예절 교육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동기부터 필요한 중요한 습관이다"며 "앞으로도 알기 쉬운 다양한 감염병 예방 교육을 통해 군민건강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여름철을 맞아 관내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각종 감염병에 대비한 올바른 손씻기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원규/기자



장흥군, 한의약 중풍 예방교실 운영



장흥군보건소는 6월 중순부터 8월까지 경로당 이용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산 동두마을을 시작으로 지역 10개 마을에서 진행되는 한의약 중풍예방교실은 마을 당 3회씩 8주간의 일정으로 추진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지역 의료기관인 장흥통합의료병원 마음건강치유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하게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중풍 예방교육 ▲기초 건강검진(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당화

혈색소) ▲한방양생 및 통합 보건교육(영양, 금연, 절주, 온열질환 예방) ▲한방차 만들기 ▲장흥통합의료병원 치유 프로그램 체험(동맥경화 검사, 경옥환 만들기, 적외선 뜸치료) 등이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는 "군민들이 질 높은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장흥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최상의 보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원규/기자

화순군 치매안심센터, 능주 치매안심마을서 예방교육

화순군은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치매안심마을인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에서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관내 치매안심마을은 총 2곳으로, 화순읍 벽라2리와 능주면 원지리로 치매 인식개선 및 예방 실천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7월 실시된 치매예방교육은 '치매 예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올해 3월 전남 최초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화순군립요양병원 범희승 원장이 초청돼 치매 유발요인, 치매예방수칙, 건강 장수 비결, 100세인 건강 습관 등을 안내했다.

한편 화순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마을 운영 이외에도 치매조기검진 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인식개선 사업 등 다양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 결의로 다가가 적극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치매에 걸려도 주인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원규/기자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 '치매예방프로그램' 박차



화순군 보건소 관계자는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 예절 교육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동기부터 필요한 중요한 습관이다"며 "앞으로도 알기 쉬운 다양한 감염병 예방 교육을 통해 군민건강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여름철을 맞아 관내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각종 감염병에 대비한 올바른 손씻기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원규/기자

올 여름 휴가는 '강진 村캉스' 어때?

한가로운 농촌에서 '익사이팅 강진'을 '저렴'하게 누리다!

강진군이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 'MZ 감성 촌캉스' 푸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휴가철 관광객 모집에 나선다.

MZ 감성 촌캉스는 기존 농촌체험 프로그램인 푸소와 촌캉스(농촌+휴가)가 결합한 형태로 2박 3일간 푸소 농가에서 숙박하며 농촌의 감성과 정을 체험하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 프로그램이다.

이번 촌캉스의 참가비는 1인당 93,000원으로 이틀간의 숙박과 3기

식사가 포함된다. 예약자에게는 짬뽕, 청자 체험 등 유료 체험 2종 무료 쿠폰을 제공하며, 4인 이상 신청 시 세트보드 무료 탑승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해 MZ 세대의 가성비 여행으로 주목받고 있다.

예약자는 인스타그램 핫 플레이스 추천 여행지, 권역별 여행코스, 관광지 등 사전에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여행 중 개인 SNS에 여행 사진을 게시하고 인증하면 푸소 굿즈(goods) 증정 이

벤트도 진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7월 10일부터 푸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 촌캉스는 M세대에는 추억을, Z세대에는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 매력적인 여름휴가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연령대의 여행객에게 푸소 체험의 매력을 널리 알려, 강진의 새로운 관광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푸소(fu-so)는 'Feeling-UP,

Stress-Off'의 줄임말로, 2015년 5월, 학생을 위주의 농촌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첫선을 보인 이후, 일반인 푸소, 강진에서 일주일 상가, 강진푸소 시티투어, 공무원 청렴 푸소 등으로 확장되며 남도답사일번지, 강진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추윤호/기자



의 질 향상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신안군, 문해 교육사 양성

어르신 삶의 질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

신안군은 한글 기초 교육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004섬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문해교육사를 양성한다.

문해교육사는 초,중학교 과정을 밟지 못해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의 한글 교육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 교육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교사를 말한다.

(사)한국문해교육협회 위탁으로 총 34명의 교육생이 7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2차로 나누어 운영하며 차수별 48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신안군 가족센터와 도초면 종합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사)한국문해교육협회 강사, 평생교육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 12명의 강사가 △문해교육과 평생교육 △문해교실 운영과 상담 △문해교사의 역할과 자세 등을 교육하고 수료 시 문해교육사 3급 자격증을 수여하게 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저학력 어르신 및

소외계층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을 통해 문해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르신들의 삶



목포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대상 7월 31일까지 납부

목포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10만 8,217건, 191억 5,6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해 구간별로 0.05%씩 인하했고, 주택 재산세의 과표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60%에서 차등적으로 43~45%로 인하고 다주택자는 현행 60% 유지한다.

주택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 2회

에 나눠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시는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스마트 위택스),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므로 7월 31일까지 납부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중배/기자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일지말고 꼭 납부하기

납부대상	주택·건축물·선박
납부방법	신용카드·가상계좌·ARS 모바일입(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납부기간	2023. 7. 16. ~ 7. 31.
문의처	목포시청 세정과 ☎ 061)270-3293

*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일에 1/2씩 부과되나 연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과세됩니다.

경북도,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시행으로 지방시대 선도

경북형 U시티 기회발전특구로 지방주도 경제성장 모델 구축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시행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을 크게 환영하며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는 국정과제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고, 10월중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해 출범할 예정이다.

또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중앙권한 지방이양사무, 지방자치조직권 강화, 특별행정기관 일괄이양, 초광역권발전사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통합된 ‘경상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7월 17일부터는 기회발전특구 TF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지금까지 없었던 국제 등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대규모 지역투자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기회발전특구의 선도적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경북형 U시티 기회발전특구 조성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먼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MOU 단계부터 대학과 도·시군이 참여하는 ‘굿 스타트 팀’을 가동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기업과 대학이 함께 개발하고, 공장 준공 단계에

바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 청년 정주사대로 대안화하고자 추진하는 ‘K-로컬 7대 정책’과 ‘경북형 K-U시티 정책’을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해 경북이 선도하는 기회발전특구 시범사업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고자 올 10월까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시군-1대학-1전략산업을 구축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구와 기업이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모두 쏠려 지방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지방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절박함으로 중앙은 지방으로 수도권은 비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시대 기적’을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며,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용성 담보를 위해 현재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과 관련 세법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법률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구와 기업이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모두 쏠려 지방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지방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절박함으로 중앙은 지방으로 수도권은 비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시대 기적’을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며,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용성 담보를 위해 현재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과 관련 세법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법률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촉구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올해의 우수벤처기업인을 찾습니다... 7월 21일까지 접수

혁신성, 기술성, 성장성이 높고 미래가치가 뛰어난 5개 기업의 대표 선정 예정

부산시는 2023년 우수 벤처기업인을 오는 21일까지 추천 또는 신청을 받고 있다.

‘부산벤처기업인 선정’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24번째를 맞이한다.

지난해까지 120명이 선정됐으며, 지난해에는 (주)케이미폴리오 이철원 대표, 몬스타(주) 이승재 대표, 브이제이(주) 김민규 대표, (주)제이제이엔컴퍼니스 전정호 대표, 아이오니아 에너지(주) 강남욱 대표 등 5명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유지 ▲회사 설립 3년 이상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부산시 소재 기업으로, 기술, 경영, 고용 창출 등의 성과가 탁월하여 대외경쟁력이 우수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크며 미래가치가 뛰어난 기업의 대표자이다.

이달 21일까지 구·군, 유관기관(단체·협회) 등에서 추천하거나 벤처기업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신청서 등을 방문 또는 우편(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7층 창업벤처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기업 현지 확인 평가를 거치고, 공격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상자 5명을 선정하며, 오는 11월 ‘벤처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부산벤처기업인상을 수상하면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인 인증서와 중소기업 운전·육성 자금, 신용보증 특례 지원 등 향후 3년간 우수기업인으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손성은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은 “첨단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술혁신을 이뤄내고 고용 창출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 벤처기업인의 사기 앙양과 자금성 고취를 위한 부산벤처기업인에 많은 추천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특정감사 결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재검토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 특정감사에 이어 도매시장 청과부류(‘88. 10. 7. 개장)에 대해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5일간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대구농수축산물유통

관리공사 설립 전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역량을 집중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위탁수수료 재검토를 요구토록 하겠다.

(위탁수수료 재검토)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것으로 1988년 개장 당시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이하에서 2000. 12. 30. 조례 개정으로 1,000분의 60이하로 하향 조정된 이후 20여년간 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다.

도매시장 3개 민간법인의 당기순이익이 5년간 29~48억 원(‘22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56~68억 원)이며, 특히 법인의 경우 2022년 임원 최대급여가 4억 3천여만 원이고 평균급여가 297백만 원으로, 타법인의 2배 이상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과도한 수익은 생산자와 소비자(농민과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법인의 수입과 비용 등 원가분석을 통해 위탁수수료 요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등록 산지유통인)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른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을 수집 출하하는 영업을 담당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의 유통효율성 제고와 출하량 조절,

가격안정, 불법 수집행위 근절을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리고 농안법 제86조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감사기간 동안 2023년 1~5월 사이의 전체 출하자 중 주소지와 농산물 생산지가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를 검토한 결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23명(최근 5년간 거래금액 31,032백만 원)을 확인해 관련 부서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할 예정이다.

(파손된 하수관) 그리고, 2022년 4월 실시한 도매시장 내 하수관 준설 및 관로탐사 결과 하수관 파손 및 균열이 다수 발견됐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개·보수 계획 수립 및 개·보수 공사 시행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히 보수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위 지적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에 대해 향후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부서에 처분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기억의 역사에서 기록의 역사로, 청송을 기록하다

청송군 근현대 생애사 구술기록 수집 사업 추진

청송군은 잊혀져가는 청송군민의 삶의 여정을 어른들의 기억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전년도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새터마을을 시작으로 청송군 근현대 생애사 구술기록 수집 사업은 매년 1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어른들의 생애사와 지역의 변천 과정 등을 마을 조사연구, 구술사 면담, 사진기록 수집을 통해 청송 지역을 기록화하고 스토리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진 과정에서 역사의 기록은 주로 국가나 민족, 사회가 주체가 되어 기록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지방의 특수성이나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에 대

한 관심은 소외되고, 민중의 생활 모습은 거의 기록되지 못한 채 빠르게 소멸되고 있다. 청송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어른들의 기억을 끄집어내 당시 생활상과 사회상을 지속적으로 기록화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처럼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의 우리를 조망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어른들의 생애와 경험이 단순히 개인의 기억을 넘어 청송이라는 공동체의 역사로 기록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장마기 고추재배 현장관리지도

“각종 병해충 중점 방제”

영양군 농업기술센터는 장마기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 고추밭 과습으로 병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에 나서고 있다.

장마기 고추밭은 잦은 강수와 높은 온도로 인해 병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역병, 탄저병 등의 각종 병해가 발생되기 쉽고 특히, 고추 역병은 토양 전염성으로 역병균이 물을 따라 전파되므로 배수로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이 시기는 고추 담배나방, 총채벌레, 진딧물 등 각종 해충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배수 즉시 해충에

대한 긴급 방제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비가 오기 전후 예방적 방제가 중요하며 특히, 고추탄저병은 장마기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빗물에 의해 급속히 증가하므로 방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추밭이 침수됐을 경우 넘어진 포기는 바로 세워주어야 하며, 무름병이 발생되기 쉬우므로 조기 배수하고 병해충(역병, 탄저병, 반점세균병, 담배나방 등) 긴급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세력 회복을 위해 복합비료 또는 요소(0.2%)로 엽면시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장마대비 미리 배수로 정비하고, 배수 즉시 병해충 긴급 방제를 실시하여 고추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63명 입국 '필요한 인력 적기 보급, 인건비도 절감'

지역농협이 공동숙소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도 유치 추진



안동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라오스) 계절근로자가 지난 4월 73명이 입국한 데 이어 7월 6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90명이 추가 입국했다.

하반기 계절근로자 90명은 안동시 청소년수련원에서 범죄예방·이탈방지 교육과 마약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관

내 14개 읍면 31개 농가에 배치됐다. 앞으로 5개월간 주로 고추, 과수 등 농작을 수확에 일손을 보낼 예정이다.

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주와 근로자의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원활한 인력공급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초청도 병행 추진해 7월부터 133명의 계절근로자가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추후, 지역농협이 5개월간 공동숙소를 운영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유치’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직접 고용이 어려운 농가와 작목 특성상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 등 다양한 농가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덕분에 농가 일손 부족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매년 가파르게 인상하던 인건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해 안정되는 추세이다”라며 “무엇보다 계절 근로자들도 내 집처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며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동시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국민의 3/4이 농업에 종사하는 라오스와 지난해 12월 MOU를 체결했다.

윤근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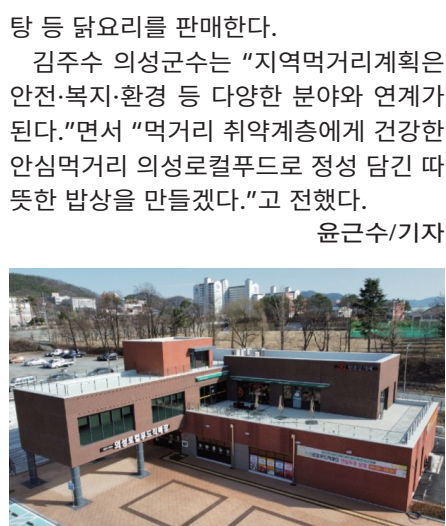
의성군,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의성로컬푸드 반찬 배달

의성군은 지역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가치 제고를 위해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서 관내 먹거리 취약계층 대상으로 건강한 안심먹거리 의성로컬푸드 반찬을 7월 11일부터 배달한다고 밝혔다.

의성로컬푸드 반찬 배달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의성을 중점관리대상자 중 반찬 배달에 동의한 44명에게 오는 7월 11일부터 10월 말까지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주 1회, 1곡 3찬으로 구성되어 약 15회 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예안은 의성로컬푸드직매장의 운영주체인 의성로컬푸드협동조합(이사장 유경희)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하는 ‘2023년 지역먹거리계획 실천모델 확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확보한 국비 2천만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의성로컬푸드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운영을 시작으로 직매장 매출액을 5억원 이상 달성했으며, 운영 222일을 맞이하여 장바구니 증정 행사와 복날맞이 초복에서 말복까지 한 달간 생닭 및 삼계



윤근수/기자

경주 건천에 다목적 체육공원 완공... 건강한 생활체육 활성화 기대

12일 건천 실내체육관에서 '서경주 체육공원 준공식' 열어

경주 건천에 파크골프장과 실내체육관 등의 기능을 갖춘 다목적 체육공원이 들어섰다. 시는 12일 건천운동장 옆 부지에 조성된 실내체육관에서 '서경주 체육공원 준공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주낙영 시장, 이동협 시의회 부의장, 시·도의원 및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사업은 9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 8877㎡ 부지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1동, 파크골프장 9홀의 체육시설과 중앙광장, 주차장 72면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했다.

실내체육관은 연면적 1162㎡로 배드민턴(6면), 탁구, 농구 등 실내 체육활동과 각종 소규모 행사로 활용이 가능하다.

체육관 내부는 눈부심 방지와 밝기 조절이 가능한 스포츠조명을 설치했고, 바닥은 시트형 탄성재를 설치해 충격 흡수성을 높였다.

또 천장고가 높은 대공간의 냉난방을 위해 공조기 2대와 공기순환팬 6대를 설치해 4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이 가능하게 했다.

더불어 태양광 발전설비로 자체 전력공급이 가능하며, 우수기에는 지하 저수조

에 빗물을 저장해 외부 조경에 활용할 수 있는 빗물 재이용시설도 설치했다.

파크골프장은 5900㎡ 면적에 9홀 코스로 조성했다. 지하수를 이용한 자동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천연 잔디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경주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36홀 파크골프장 외에도 각 권별별 총 5개소의 파크골프장 63홀을 신규로 조성 중에 있다. 그 중 오늘 서경주 파크골프장이 가장 먼저 준공을 맞이했다.

실내체육관은 8월부터 개관하며, 파크골프장은 잔디 특별관리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개장할 예정이다. 보다 상세한 운영은 건천읍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지난 2009년에 조성된 건천운동장에 새로운 생활체육 기능을 더해 오늘 '서경주 체육공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됐다"며 "축구장, 육상트랙, 족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그리고 파크골프장과 실내체육관까지 갖춘 다목적 체육공원에서 서경주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여가생활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울진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지역주민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본 공청회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의 추진 배경과 목적, 필요성,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마을주민, 관계 공무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고 울진군의 재해예방을 위한 뜨거운 토론의 장으로 진행됐다.

이번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열람 공고와 군의회 의견 청취, 경상북도와와의 협의를 거친 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올해 안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재정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울진군이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진군은 지난 12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울진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자연재해대책반'에 따라 군의 인문, 지형적 여건과 자연재해를 비롯한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울진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설명 후 관계전문가의 토론회

장문화/기자

문경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문경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3만 9천여건, 46억5천2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고지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인하되는 등 지난해에 비해 일부 경감이 됐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종이 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



세입계좌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범희 세정과장은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 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고,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동해안 1300리 비치코밍 봉사활동 나서

GB대학사회봉사단, 국민 3단체 등 하나 되어 지역 환경문제 해결 앞장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경북도는 깨끗한 경북 동해안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동해안 1300리 비치코밍'활동에 나섰다.

비치코밍은 Beach(해변)와 combing(빗질하다)의 합성어로 해변 정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해변 환경정화 캠페인이다.

이날 행사는 영덕 장사해수욕장을 메인으로 포함.경주.영덕.울진 9개 해변에서 동시 진행했다.

도내 15개 전문대 학생 500여명으로 구성된 GB대학사회봉사단과 국민3단체(경상북도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경상북도지부, 바르게살기경상북도협의회) 및 해양전우회경상북도연합회, 경북지부 JC특우회 2천여 명이 참여해 대학생과 주요 기관단체가 함께 지역사

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이날 영덕에서는 비치코밍 활동에 앞서 유용한 미생물을 뜻하는 EM(Effective Micro-organisms) 군 배양액과 흙을 섞어 만든 Em흙공 단지가 퍼포먼스를 장사전승기념관 갑판 위에서 진행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경북전문대 제301학생군사교육단 80여명도 참여해 전승기념관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 본격적인 비치코밍 활동으로 총 9개 해변에서 10여 톤의 쓰레기를 수거해 해양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경북도와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 포

항·경주·영덕·울진자원봉사센터 참가자들은 이번 활동은 '자원봉사의 힘'으로 이뤄낸 값진 활동이라며 '작은 힘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는 의미로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비치코밍 활동을 후원하는 포스코와 한국수력원자력, 경상북도개발공사 관계자는 "경북도가 자원봉사로 주도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만큼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임휘승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대학생과 주요 단체가 한마음으로 참여한 비치코밍 활동을 통해 깨끗한 동해안 해변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

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재)예천군민장학회, 출향 기업인 초청 청소년 해외연수 사전 설명회 개최

해외로 꿈을 펼치는 발판 마련의 기회, 상세 일정 등 알려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는 11일 오후 7시 군청 대강당에서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해외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관내 고등학교 1학년 21명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연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일정 및 유의 사항 안내, 질의응답을 통해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연수 대상 학생은 오는 8월 3일부터 11일까지 7박9일 간 미국 뉴욕, 워싱턴 D.C 등을 방문하여 사회·문화·경제 등을 직접 경험하며 글로벌 인재로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예천군 용문면 출신 권충천 회장(희창물산), 권중갑 회장(스탠포드호텔코리아), 권일연(미국 H-마트)대표 삼정제과 강병모 대표(우일음료)가 지역 인재 양성의 뜻을 모아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이번 프로그램은

항공료와 체제비 등 여행경비 일체를 후원하여 학생들의 자부담 없이 진행된다.

김학동 이사장은 "단순한 문화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 예천군 출향인의 모습을 통해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아이비리그 대학 견학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서 진로의 폭을 확대하여 꿈을 구체화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해외연수 프로그램 재개에 대한 기쁨과 고향 청소년 해외연수 후원사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예천군은 (재)예천군민장학회를 통하여 고등학생 공동교육과정 지원사업 외에도 청소년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한 △청소년 꿈키움 탐방 지원 △청소년 성장캠프 운영 △고등학교 맞춤형 진학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며 명품교육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박남서 영주시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참여

박남서 영주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에 동참했다.

이날 박남서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의 지목으로 참여하게 된 박남서 시장은 다음 참여자로 김찬진 인천 동구청장을 지목했다.

한편 영주시는 사무실 내 1회용 컵 대신 개인 컵 사용을 장려하고, 우천시 우산 빗물 제거기를 사용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주)아비오 300억 규모 투자유치 업무협약(MOU)체결



봉화군과 (주)아비오는 12일 봉화군청 소회의실에서 봉화군의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협약과 친환경 원재료를 이용한 탄소화장품 생산을 위해 300억 규모의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봉화군수, (주)아비오 이태영 대표이사를 비롯해 업무관련 부서장 및 아비오 직원 등 12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곡농공단지 내 미분양된 용지 10,140평에 원스탑 생산공정 시스템을 구축한 글로벌 브랜드 화장품 생산단지 건립 계획을 공유했다.

(주)아비오는 친환경 재료인 인삼, 소나무 등을 이용하는 건식증류추출생산 탄소화장품 제조업체로서 100여 명 이상의 신

규고용 창출과 함께 봉화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재료를 적극 이용함으로써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봉화군은 (주)아비오와 친환경 재료를 이용한 생산단지 구축 및 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관내 우수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취업 연계와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행정지원 등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로서 (주)아비오의 투자계획에 의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으로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달산면 새마을협의회, 국가문화재 주변 정화 활동 펼쳐

영덕군 달산면 새마을협의회 회원 20여 명이 피서철을 맞아 지난 7일 옥계계곡 일대에서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회원들은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옥산 산성계곡과 옥계 침수정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20여 마대를 수거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옥계 침수정 일원이 국가 문화재 명승지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화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권순학 달산면장은 "지역 환경 개구기에 앞서서 몸소 실천해 오신 새마을지도자 남녀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다"며, "민관이 힘

을 모아 자랑스러운 지역의 문화재와 청정한 자연을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문화/기자



창업일번지 경북!! 우수창업보육센터 시상식 개최

경북도, 수도권 제외 전국 최다 창업보육센터 보유

경북도는 11일 포항공대에서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5개 우수 창업보육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우수창업보육센터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는 최우수상에 포항공대 기술지주, 우수상에 대구가톨릭대, 경북도립대, 포항대, 대구대가 수상했으며, 도지사상과 함께 최우수 4천만원, 우수 각 1천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23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경영평가와 센터별 특화전략, 입주기업의 사업성과, 보육역량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 심사해 5개소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포항공대 기술지주 창업보육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경영평

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 입주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본 투자와 체계적인 창업 지원으로 매출액 452억원(전년 대비 116% 증가), 투자 454억원, 고용 창출 549명(전년 대비 23% 증가)으로 도내 창업보육센터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대구가톨릭대 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전년 대비 매출과 고용, 투자 부분에서 급성장한 실적을 인정받았다.

경북도립대 창업보육센터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 특성을 살린 6차산업 기반 창업기업 육성에 힘쓴 점이 높이 평가됐고, 포항대 창업보육센터는 지

난해 태풍 한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해 경영 안정화와 기업복지에 힘쓴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대구대 창업보육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아기유니콘200육성사업'에서 아기유니콘 기업 2개사를 배출해 도내 우수한 기술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기업 발굴, 육성에 힘썼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한편, 현재 수도권 제외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창업보육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창업보육센터가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청년창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든든히 해 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도내 23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561개 기업에서 고용인원 2천317명과 매출액 2천783억 원의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창업보육센터가 혁신 아이디어 창업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는 해결책은 바로 창업"이라며, "경북도에서도 대학과 연계해 청년들이 창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칠곡군, 북삼농협과 손잡고 저가 참외 시장격리 시범사업 시작

칠곡군이 북삼농협과 함께 저품위 참외의 유통근절을 통한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성출하기 저가 참외 시장격리 시범사업을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했다.

칠곡군 참외재배농가는 500농가 재배면적 390ha로, 저가 참외 시장격리 사업은 참외재배농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장마철 및 성출하기에 저품위 참외가 유통시장에 출하되어 가격 저하 및 이로 인해 출하를 포기한 농가의 참외 무단투기 등으로 환경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시작하는 시범사업의 대상은 북삼읍 내에서 생산된 미색과, 열과, 기형과와 같은 중-저급품위 참외 80톤 정도로

사업비 4천만원으로 5주간 매주 목요일, 금요일 실시될 예정이며, 첫째 주에 약 11톤의 참외를 수매하여 시장격리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저가 참외 수매를 통한 시장격리 및 공급량 조절로 농가수취가격이 증대되고 칠곡벌꿀참외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홍수 출하 시 가격 폭락으로 인해 버려지던 참외가 줄어들어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소득향상과 농촌환경보존을 위해 참외재배농가 및 농협과 협의하여 사업을 더 발전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송광삼/기자



구미시, 2025 구미 아시아 육상경기대회 성공개최...노하우 배운다

김장호 구미시장, 차기 개최지 대표로 폐회식 참석·대회기 인수

2025 아시아 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구미시는 12일~1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25회 아시아 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대회를 참관한다.

이번 대표단에는 김장호 시장, 윤상훈 시 체육회장을 포함 20여명이 참여, 구미대회 성공을 위해 경기장 시설과 경기 운영방식 등 노하우를 배울 예정이다.

한편, 대회 참관에 앞서 14일에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10월에 개장 예정인 구미아시아육상경기장을 위해 방콕의 조드페어(Jodd Fairs) 아시아장을 방문해 운영의 오랜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15일에는 방콕 아시아 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주 경기장인 수파찰라사이 국제 경기장, 보조경기장, 선수촌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종목별 경기를 참관하며 남은기간 시에서 준비할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1975년 제2회 대회(서울), 이후 아시아육상연맹 이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공동 주관기관인 대한육상연맹, 시도체육회와 대회 운영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16일에는 김장호 시장이 폐회식에 참석해 대회기를 인수하고, 홍보영상 송출

등 각종 선수단과 관계자, 국제 스포츠 관라를 대상으로 구미시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김장호 시장은 "대한체육회, 도 체육회에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국제대회 성사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구미시민의 관심과 참여다. 2025년 여름,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시아육상대회를 개최하고 국제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아시아 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1962년 아시아인 게임에서 인도네시아 육상연맹 아지즈 살레(Aziz Salleh) 회장의 주도로 기획됐으며, 2년에 한 번씩 아시아육상연맹(Asian Athletics Association) 주최로 개최된다. 참가 규모는 45개국 1,200여 명 정도로 아시아권 육상대회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권위 있는 대회로 손꼽힌다.

특히, 1975년 제2회 대회(서울), 2005년 제16회 대회(인천) 개최 후 국내에서 20년 만에 개최하는 2025년 구미 대회는 같은 해 도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참가권이 걸린 전초전으로 참가 열기가 더욱 뜨거울 전망이다.

김동현/기자

(주)성신엔큐, 대구에 미래차 부품 제2공장 설립

330억 원 규모 투자로 대구국가산단 내 전기차 부품 제조공장 건립



대구광역시 7월 12일 오전 11시 대구 시청 산격청사에서 (주)성신엔큐와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전기차 부품 제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991년 설립된 (주)성신엔큐는 엔진용 타이밍커버를 포함한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으로, 대구국가산업단지 丙 12,716㎡(3,853평) 부지에 금년 말까지

330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팩 압출 가공품과 냉각펌프 하우징 등을 포함한 전기차 부품을 전용으로 생산하기 위한 제2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주)성신엔큐 제2공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내·외 미래차 부품 수요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8월에 착공, 12월 준공 후 2024년 1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주)성신엔큐는 이번 투자를 발판으로

2030년 매출 1천억 원의 자동차 업체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성신엔큐는 1991년 창사 이래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기업으로 특히 2019년 대구시의 '차세대 선도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전기차 배터리팩 부품 양산을 시작으로 올해 국내·외 1차 협력사로부터 전기차 부품 대량 수주를 받아 해당 전용공장



을 신설하게 됐다. 이로 인해 (주)성신엔큐는 '24년 매출은 '23년 대비 30~40억 원 증가, '25년부터는 약 12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지역 자동차 기업의 빠른 미래차 전환을 위해 '미래모빌리티 선도기술 개발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 결과 전국 미래차 사업재편 승인 5곳 중 1곳은 지역기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미래차 전환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사업화, 판로개척, 인력양성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미래차 전환 전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성신엔큐 곽 한 대표는 "대구시는 모빌리티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관련분야 생산기반과 산학협력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다"며, "앞으로 전기차 부품 관련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통해 지역 미래모빌리티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중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주)성신엔큐의 전기차 부품 전용 제2공장 신설 투자를 환영하며, 대구가 미래모빌리티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이 살아야, 경북이 산다!" 청송군, 2023 생생버스 운영



"지방이 살아야(生) 나라가 산다(生)"는 구호로 운영되는 경북 생생(生)버스가 7월 12일 청송군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직

접 답을 찾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생생(生)간담회를 가졌다.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선두주자로의 도약을 위한 이철우 도지사와의 이번 발걸음에는 윤경희 청송군수 등 지역 기관·사회 단체장 등 150여 명의 군민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윤경희 청송군수와 이철우 도지사는 전국 최초 농어촌 무료버스 운영 현장을 방문하여 무료버스를 탑승하고 청송항금사와 연구단지 조성 현장으로 이동하여 현장시찰과 함께 청송군 귀농인들이

과 차담회를 가졌다.

또한 경상북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관내 4개 고등학교와 교총F&B 등 6개 기업이 함께하는 '청송군 항노화 U시티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했으며, 경북형 U-city 프로젝트를 통해 청송군의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정주여건을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개최된 생생간담회는 약 80분간 이루어졌으며 청송군의 현안 및 도정방향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주민들은 법무부 외국인보호소 신축, 월마지구 공동주택 건립 및 도시지역확장, 농작물 재해보험료 도비 분담률 상향, 수변구역 행위제한 규제완화 등을 적극 건의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의 힘이 바로 경북의 힘이다. 이번 생생간담회가 주민들과 소통·공감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데 한걸음 다가가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2023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개최

재활용품경진대회 시상식 함께 열려

영양군새마을회는 7월 11일 영양군민회관에서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하고, 단체인 화합도모를 위하여 '2023 재활용품경진대회 시상식 및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하계수련대회는 새마을지도자의 자기진작을 위한 새마을운동 우수지도자 표창 뿐만 아니라 새마을환경살리기의 일환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한 우수 읍·면 새마을회를 표창하고자 2023 재활용품경진대회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다. 금년 재활용품 수집 평가결과 석보면새마을회가 2년 연속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상장과 상금을 수여받았다.

또한 영양군 최대 현안 사업이자 인구절

벽 해소의 해결책인 양수발전소 유치 지원 캠페인을 전개하여 청정한 영양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이 우리군 발전의 원동력이며, 과거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하나 되어 민군을 극복했듯이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공동체 회복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독도지킴이 연예인 홍보단, 울릉군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7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울릉도·독도를 방문한 독도지킴이 연예인 홍보단이 울릉한마음회관에서 울릉군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독도사랑운동본부가 경상북도 울릉군, 여러 기업의 후원으로 마련한 자리이며, 울릉군민을 위한 아카데미와 콘서트, 기부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히, 울릉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농구·유도·보컬·연기 아카데미가 큰 인기를 끌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작은 거인 최민호 선수와, 미달이 김정은 배우 등이 강사로 참여하여 생활 호신술과 연기 트레이닝 등을 지도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일본계 귀화 한국인 호사카 유지 교수의 '세계 속 독도 바로 알기' 특강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풍랑주의보로 인한 선박 운항 통제로 강연이 취소된 것이다.

하지만 독한('독도는 한국땅'의 줄임말) 콘서트에서는 울릉군 홍보대사 백봉기씨와 독도지킴이 연예인 홍보단이 출연하여 신나는 무대를 꾸몄고, 청소년댄스&가요제에서는 울릉도 청소년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끼를 발산하며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울릉도 출신 랩퍼 뮤즈 은유리씨의 축하공연은 울릉도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본 행사장에서 후원기업들의 굿즈와 제품을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울릉군 인제 육성 기금으로 전달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남달권 울릉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문화소의 지역인 울릉도를 찾아 주민과 함께 유익한 행사를 개최하고 우리땅 독도를 알리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활동하는 (사)독도사랑운동본부 및 울릉군민의 문화활동을 위해 방문해 준 연예인 홍보단에 감사함을 전했다.

조장재/기자



남해군, 윈스톱 관광플랫폼 구축 사업설명회 개최

관내 숙박·식당·체험마을 등 관광사업자 대상 의견수렴

남해군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윈스톱관광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남해유배문학관과 남해화전도서관에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했다. 실제 플랫폼을 사용하게 될 숙박·민박·식당·레저·체험마을 등 관광사업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윈스톱 관광플랫폼'은 모바일을 통한 번에 남해의 모든 관광,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 레저 등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은 물론, 통합 예약·결제까지도 가능한 시스템이다.

남해군은 지난 6월 사업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공공플랫폼의 저렴한 수수료, 통합 홍보, 상품 관리 등의 장점이 소개됐다.

또한 관내 관광사업자의 목소리를 청

취하고 구축 단계에서부터 현장의견을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가한 펜션업주는 "개별적으로 펜션 홍보 보다는 윈스톱관광플랫폼을 통해 통합 홍보가 굉장히 바람직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윈스톱 관광플랫폼 구축사업이 관내 관광사업체의 관광수용태세 인식 전환점이 되어 고품질 관광납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주들과 함께 친절 결의를 다지는 기회도 됐다"고 밝혔다.

윈스톱관광플랫폼은 9월 중간보고회 및 11월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방식과 시스템 보완 등 체계적 운영관리를 구축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이유준/기자

경산시 2023년 상반기 신규수급자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 실시

경산시는 11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상반기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10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 방법, 급여 일수 산정 방법, 노인 완전농민 및 임플란트, 요양비, 의료급여연장승인, 선택병원, 상해 요인,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2023년 달라진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해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이해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적정 의료이용을 안내해 건강 수준 향상을 도

모하는 한편, 의료기관 이용으로 낭비되는 의료급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진행된 현대인의 우울증 교육으로 올바른 정신건강에 대해 인지하게 했다.

박승일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이 신규수급자에게 의료급여제도를 널리 알리고, 올바른 의료이용 방법을 안내하여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와 필요한 건강관리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들의 건강한 삶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송광삼/기자



경북주도 지방시대!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논하다

사회적경제 주간 맞아 '2023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 개최

경북도는 12일 대구대 본관 스키아라운드에서 "경북 주도 지방시대에 부응하는 사회적경제 역할"을 주제로 '2023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경제주간(7월 첫째주)을 맞아 사회적경제 로컬 브랜딩에 성공한 다양한 사례를 살펴봄에 경북이 주도하는 행복한 지방시대를 열고자 마련했다.

이달회 경북도 경제부지사, 박순진 대구대 총장, 박재아 경북도의원, 김재구 한국경영학회회장, 강대성 대한사회복지회장 등 학계·관련 전문가, 사회적기업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 행사는 △지역소멸과 로컬리듬 : 경북의 사회적경제·체인지메이커의 역할

에 대한 기초발제를 시작으로 △로컬아이덴티티의 재해석 △경북 로컬 브랜딩을 통한 사회적경제 실현에 대한 사례 발표 후 참여 패널 토론회로 진행됐다.

[세션] '지역소멸과 로컬리듬'의 발제자인 전영수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지역사회의 시민조직, 공공과 영리의 중간지대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경제조직 및 협력조직의 육성·지속성장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진 [세션II]에서는 '로컬아이덴티티의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박순진 대표(주식회사 공존공간)가 도심 공동체 형성과 일자리 창출 등 공간기획·브랜딩 콘텐츠 생산에 대해 수원시 행궁동 사례를 발표했다.

이민주 대표(주식회사 명주정원)는 라이프 스타일 기반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를 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자발적 협력과 상호 원조,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지배구조, 자율성과 독립성 원칙에 기반을 두는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현재 사회적경제 로컬브랜딩의 일환으로 "경북형 소셜문화관광 활성화", 올해 개최되는 "마을기업 가치박람회", 신한카드, 롯데 등 대형유통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한 판로지



원"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달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연대를 지향하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부산-경남 행정통합, '협력과 공론화로 공감대 확대 추진'

시도 간 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로 시도민 인식과 여건 성숙 노력 지속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오늘(12일) 오후 1시 부산한국제천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계획에 대한 공동입장을 밝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론조사는 지난 5~6월간 총 2차례에 걸쳐 총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행정통합 추진 논의에 대한 시도민의 인지와 찬성의견이 과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통합 논의 인지 여부 문항에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9.4%를 차지해 인지 응답(30.6%) 대비 2배 이상 높았으며, 행정통합 찬반 견해는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조사됐다.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이유는 수도권 집중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았으며, 행정통합 반대 이유는 통합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적다는 응답이 50.5%를 차지했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아 시도민들의 객관적 의사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번 조사결과로 시도민이 행정통합 추진 논의를 인지하고 찬반 의견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의 노력이 미흡했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부족한 부분을 성실

히 보완하여 시도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양 시도는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지속적인 공론화 등을 통해 시도민들의 인식과 여건을 성숙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 협력해 오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광역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에 더욱 속도를 내고,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시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협력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과제는 부산-경남 고위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신설해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울산까지 포함하는 부울경 경제동맹의 협력사업을 다각화 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오전 출범한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포함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3개 시도가 한 목소리로 대응해 나간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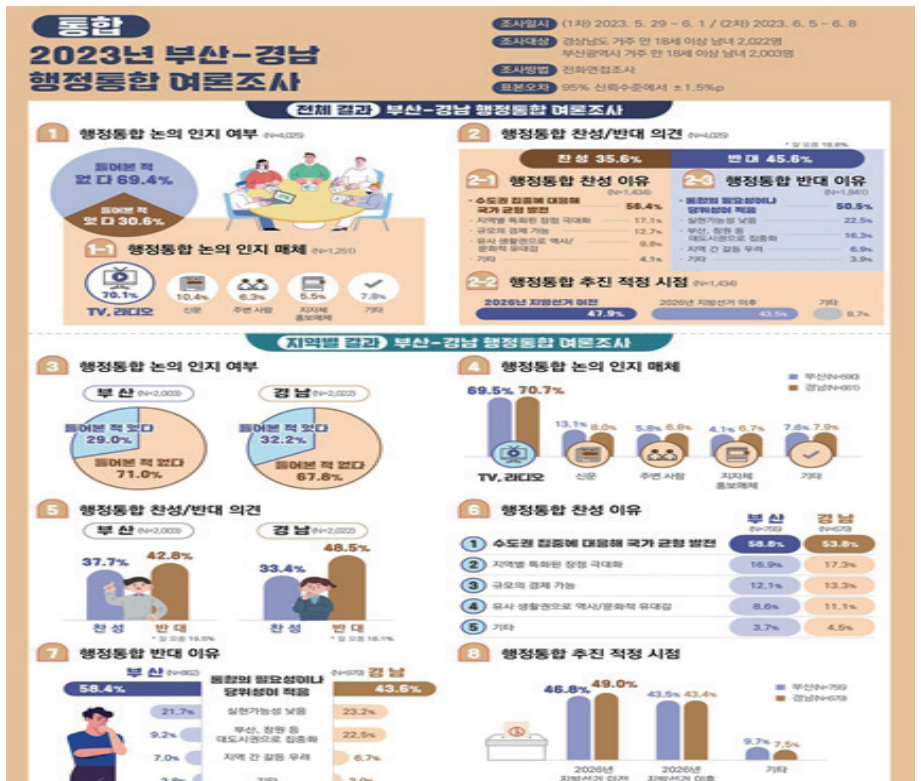
추후 민관이 참여하는 행정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론화를 더욱 강화하고 여건이 무르익으면 추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시장과 박원수 경남도지

사는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이제 시도 간 협력과 연대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행정통합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시도민 의의사라는 것은 행정통합 논의 시부터 변함없는 입장이다"라며, "충분한 논의

와 시도민 의견 청취, 지역 여론 수렴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통합을 신중히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책임감 있는 행정적 결단으로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송종진/기자



김천상무, '월요일Z' 탈출 대학생마케터 기획 홈경기 진행!



김천상무가 7월 10일 부산아이파크전에서 대학생마케터 인사이더 기획 '날려버려 월요일Z' 테마의 홈경기를 진행한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10일 오후 7시 30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2 2023' 20R 부산아이파크와 홈경기를 치른다. 김천상무는 부산전 홈경기에서 대학생마케터 인사이더가 기획한 '날려버려 월요일Z' 컨셉으로 다양한 장내·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천상무는 2023 시즌 첫 월요일 홈경기를 맞아 직장인 및 학생 겨냥 월요일 특급 이벤트를 벌인다.

장외 이벤트 부스에서는 '날려버려 월요일Z' 스탬프 이벤트를 실시한다. '부쉬버려', '떨어버려', '깨버려' 세 가지 이벤트를 참여하면 도장을 받을 수 있고 도장을 모두 모으면 월요일Z 특급이 가능한 백신을 증정할 예정이다. 에어바운스 슈팅 이벤트, 만보기 갯수 측정 이벤트, 선수단 및 마스코트 굿귀 전달 이벤트 등 진행 예정이다. 세 이벤트에 모두 참여한 팬에게는 백신 역할을 하는 랜덤 스크래치 복권과 투명 포토카드를 증정한다. 스크래치 복권을 통해 인형, 사인볼, 백구, 구단 물품, 핀버튼 등을 받을 수 있다.

하프타임 이벤트로는 전광판 활용 이벤트들을 진행한다. 월요일 관련 퀴즈 이벤트인 '주말을 잡아라' 이벤트와 프로 선수단이 월요일Z 극복을 위해 팬들에게 전하는 영상 메시지 송출 '월일캠프'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이더 2기 콘텐츠 팀 임채원(21) 학생은 "2달 전부터 홈경기를 위해 컨셉 선정, 이벤트 기획부터 실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홈경기 준비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우고 느낀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다. 팬분들께서도 많이 참여해서 즐겨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효진/기자

제10회 청도 예술인의 날 개최

청도군은 (사)한국예총 청도지회 주관으로 지난 11일 새마을회관 3층에서 '제10회 청도 예술인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도군의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 권익증진,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청도 문화예술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산농악, 이롭소리, 청도무용협회, 극단 한내의 풍성한 사전 공연과 제10회 예술인 상 시상 등 예술인들의 활동을 자축하는 다양한 행사들로 진행됐다.

이번 기념식에서 수여된 제10회 예술인 상은 청도를 비롯한 곳곳에서 청도차산농악의 열을 올려 퍼지게 한 청도를 대표하는 예술인인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호 청도차산농악 예능보유자

김오동 선생이 수상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화예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상하신 불세출의 상쇠 김오동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청도의 많은 예술인들이 세계로 뻗어나가시길 기원드리며, 이에 발맞춰 문화예술관광의 메카 청도를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 무형문화재 제4호 청도차산농악 예능보유자 김오동



박경귀 아산시장, 4개 사(社) 1850억원 투자유치 협약

신규고용 320명 기대...박 시장 "탁월한 결정 되도록 적극 지원"



아산시가 국내 유수 기업 4개 사(社)로부터 총 18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11일 오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홍 충남지사를 비롯해 8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과 15개 기업 대표가 참여한 합동 투자 협약식에 참석, 한국에버스톤(주) 등 4개 기업과 함께 제조공장 신설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업은 아산시 음봉, 도고 등에 7만 5823㎡(2만 2936평)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게 된다. 시는 사업이 완료된 후 320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먼저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 업체인 한국에버스톤(주)은 1100억 원을 투자해 도고면 와산리 일원 2만 9548㎡ 부지에 공장을 신설, 150명을 고용한다.

음봉면에는 (주)대영이엔씨와 동보테크(주) 두 개 사가 투자에 나선다. 배관 제작 및 용접 업체인 (주)대영이엔씨는 음봉면 원남리 3만 1400㎡ 부지에 200억 원을 투자, 40명이 근무하는 제조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 콜링 플레이트 업체인 동보테크(주)는 150억을 들여 음봉면 신유리 9917㎡ 부지에 공장을 세워 50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주)케이엔제이는 반도체 제조용 소재 부품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장비 업체로, 중국 쑤저우(소주) 사업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다.

400억 원을 투입해 아산 스마트벨리 일반산업단 4958㎡ 부지에 공장을 증설하고, 80명을 신규 고용하게 된다.

협약식에서 박경귀 시장은 "투자를 결정해 주신 기업 대표님들과 임직원 여러분께 37만 아산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아산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다. 여러분의 투자 결정이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아산은 모든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하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기업활동뿐 아니라 모든 임직원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 여건과 아트벨리 아산으로서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업체 대표로 나선 심호섭 (주)케이엔제이 대표는 "3년 전 충남도와 350억 원 투자 협약을 한 이후 아산 스마트벨리에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열심히 사업에 매진해 계속 증설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태홍 지사는 "경제가 튼튼한 힘센 충남을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충북도, '제5차 규제혁신 특별팀(TF) 회의' 개최

"대한민국의 중심(中心→忠),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규제개혁"

충북도는 7월 10일 실국 및 직속기관 등 중앙규제 건의부서, 규제전문가 등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규제혁신 특별팀(TF)(팀장 조덕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 규제혁신 특별팀(TF)'는 민선 8기 규제품질 제고 및 현안규제 발굴을 위한 전 부서별 규제관리 책임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유관기관·전문가, 도·시군 규제개혁 협의체 등 50명이 협의체로 구축하여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또한 지난 6월 29일 '충청북도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통하여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에 대해 중앙부처(행안부, 식약처, 환경부, 농림부), 지자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기업체 등 각계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규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집중토론회의 장을 마련했으며, 하반기에 중부권·남부권 등 권역별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심 없이 추진하여 도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딸기 육묘기, 장마철 병해 관리 '철저'

도 농기원, 장마철 고온·다습 환경에 탄저병·시들음병 예방 강조



충남도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는 12일 장마철 집중 호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딸기 육묘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병해 예방을 강조했다.

장마로 인해 과습, 일조 부족을 겪은 딸기묘는 탄저병, 시들음병 등에 매우 취약하게 된다.

고온다습(25~30°C)한 장마 시기에 육묘 포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탄저병은 잎, 뿌리, 잎자루 감염 시 검은색의 반점이 형성되고 관부 감염 시 점진적으로 갈변돼 결국 시드는 증상을 보인다.

탄저병 방제를 위해서는 육묘 포장에 과습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잎에 결로 시간이 길수록 탄저병 발생이 증가하므로 가급적 잎에 결로가 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시들음병은 28°C 이상의 고온, 상토의 과습과 과건조한 조건에서 발생이 높으며, 새잎이 황록색이 되거나 작아지고 3소엽 중 1소엽이 다른 소엽에 비해 작게 돼 짝이 발생한다.

시들음병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차광을 잘하고 관부에 냉수를 순환하는 등 기온 및 지온을 낮춰줘야 하며, 토양과 상토의 수분을 일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병 발생이 많은 정식 직후에는 딸기에 등록된 약제를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처리해야 하며, 약제가 관부까지 충분히 흘러 내리도록 집중적으로 방제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병에 걸린 묘는 바로 제거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박한나 도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연구사는 "전년도에 탄저병, 시들음병 등 병 발생이 심했다면 이를 줄이기 위한 환경 관리와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천안시, 데이터 기반 시각화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도출 기대, 총상금 1200만 원 5팀 시상

천안시는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행정업무의 혁신과 시정 발전에 기여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천안시 데이터 기반 시각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천안시 행정업무 개선 아이디어 기획 ▲다양한 데이터로 표현하는 천안시의 현재 모습 2가지이다. 천안시 기업 현황 분석, 천안시 인구 변화에 따른 교통 이용 현황 분석 등 대 주제에 맞춰 세부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해 관련 내용을 시각화하면 된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최대 4인)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과제 접수는 8월 31일까지 공모전 참가 신청 양식과 분석 결과물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면 평가와 2차 본선 발표

천안시 데이터 기반 시각화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기간: 23.07.11.(수) ~ 08.31.(목)

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및 팀 접수 가능 (1인 이상 4인 이내)

공모주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천안시 행정업무 개선 아이디어 기획
다양한 데이터로 표현하는 천안시의 현재 모습

예) 1. 천안시 기업 현황 분석 및 시각화
2. 천안시 인구변화에 따른 교통 이용 현황 분석 및 시각화
3. 천안시 복지서비스 위치분석을 위한 시각화

시상: 총 1,200만 원
1등: 300만 원
2등: 250만 원
3등: 150만 원

문의: data.support@kodata.co.kr (02-780-9832)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부실 사례 확인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민단체 보조금 사업 조성을 위한 감사 결과 공개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감사 결과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 외에도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 설립계획 수립 초기 및 진행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업무 부실이 확인됐다.

원주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보조금 집행이 향후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

먼저, 센터에서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수익계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됐다.

①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과 용역 등 수익계약 부적절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4명이 각각

한 시정이나 지적사항 없이 적정으로 감사를 완료하는 등 자격요건 검증 소홀

② 용역계약 체결 시 수익계약 운영 부적절

특정업체 2곳(동일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3년간 22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 우려와 1인 견적제출 수익 계약 체결시 제출받은 견적서의 경제성 비교 검토, 세부적인 산출 내역을 확인하는 노력 부족 등 최종 계약금액 검토 소홀로 예산절감 기회 상실

원주시는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등의 보조사업 관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특정감사 및 성과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을 지속할 예정으로 감사

태백시, 실버요양원 앞 교차로 좌회전 차로 신설 추진

태백시는 문곡소도동 태백시실버요양원 앞 교차로에 좌회전 전용 차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본 교차로는 좌회전이 가능했지만 전용 차로가 없어 황지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실버요양원 및 갯밭드리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 1차로에서 정지할 때 뒤따라던 차량과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까지 좌회전 전용 1개 차로를 신설할 계획이며, 이번 공사를 통해 △좌회전 전용 차로 신설 △신호등 설치 및 이설 △신주·가로수 이설 등을 시행한다.

안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안동시는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를 통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시작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감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시·단속대상으로는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 우려지역의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특히, 방지시설 미가동,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및 순찰을 강화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

치가 이루어지며,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여름 휴가철 공중화장실 특별 점검 추진

이용객 증가 대비 위생·청결 및 안전, 범죄예방 중점 추진



경북도는 7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편의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도내 해수욕장, 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설치돼 있는 공중화장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 비상벨·경광등 시설 작동 여부,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및 의심 흔적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범죄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또 공중화장실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신체접촉이 빈번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 소독 여부 등 방역관리 상태를 특별 점검하고, 비누, 휴지 등 편의용품 비치,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이용가능 여부 등 이용객들의 편의시설 이용 증진을 위한 점검도 병행한다.

경북도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조치하고, 중대한 사항

이용객 증가 대비 위생·청결 및 안전, 범죄예방 중점 추진

법에 대한 보수·보강 등 문제 해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관광지 등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과 시설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공중화장실 이용객들도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이용문화 정착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학교 및 학원가 주변의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실시

후곡 학원가 주기적인 단속 실시...주민신고제 홍보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관내 학교 및 학원가 지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 환경 정착을 위해 추진됐으며, △어린이 및 청소년 등 교통약자 통행이 많은 학교 및 학원가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주변 △인도 등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후곡 학원가는 평소 학원차량 및 학부모 차량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보행자와 운전자가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단순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학교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영기/기자



서귀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서귀포시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가 운영되는 곳은 △덕수초, △신산초, △한마음초, △성음초, △수산초, △풍천초, △하원초, △보목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번 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난 12월부터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친 후, 2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6월 말 설치공사를 완료했다.

그리고, 표지판, 노면 차선 도색 등 정비와 함께 안내 현수막 게시 및 사전 집중계도를 실시하고, 8월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정차 단속 시간은 평일 동지역 07:30~21:00, 읍면지역 07:30~20:00, 휴일 전지역 09:00~18:00이며, 점심시간 11:30~13:30(2시간)과 동지역 10분, 읍면지역 20분까지의 주정차는 단속을 유예한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관내 45개 초등학교 중 이번 신규 단속 구간을 포함하여 총 33개소에서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게 된다.

향후 미설치 초등학교 11개소(가파초 제외)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를 지속 추진하여 교통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운전자가 불필요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사전 계도와 홍보에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의 올바른 주차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황지원/기자



인천시 부평구,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인천시 부평구는 7일 산곡동 원적사거리 등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부평구 및 인천지방경찰청, 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자 10명이 참여해 불법 이륜자동차 10대를 적발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 변경사항으로, 소음기 불법개조,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0건의 차량 중 형사처벌 대상 5건은 경찰에 이첩하고, 3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미한 위반사항 2건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우선 차량소유자가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불법 개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특히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을 크게 울리며 운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Everywhere Green Life, H₂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 · Feel · 必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안동교육청, 서로 서로의 몸과 마음을 아끼고 살려요

꿈빛유치원, 성폭력 예방 인형극 체험

꿈빛유치원은 지난 10일(월), 유아 119명(7학급)을 대상으로 유치원 강당에서 성폭력 예방 인형극 체험을 실시하였다.

이번 성폭력 예방 인형극 체험은 국내 이버스와 협력하여 나와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의 소중함을 알고 유인 및 성폭력 예방 방법을 실천해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유아들은 인형극 전에 선생님과의 인사를 나누고 인형극 관람 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알아보고 관람 준비를 하였으며, 인형극을 통해 '소중한 서로의 몸 아끼주기', '불편한 접촉 거절하기', '유인

및 성폭력 위험 상황 대처하기'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만5세 00은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이야기 해야 해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정확하게 내 마음을 표현 할거예요."라고 말했다.

김희숙 원장선생님은 "성폭력 예방 인형극을 통해 유아들이 몸의 소중함을 알고 스스로 몸을 아끼고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아들이 위기 상황 발생 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AI 인공지능 시대의 동행을 위한 도전의 장 마련

2023 경북 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

경북교육청은 12일 국립안동대학교 정보통신원 및 국제교류관에서 특수학교(급) 초·중·고·전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2023 경북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장애학생들의 e스포츠 올림피아드라고 불리는 이번 대회는 학생들이 가진 정보화 능력을 신장하고, 사회의 장애 인식을 개선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e스포츠 부문은 학교 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참여해 통합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경기로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오전에는 정보경진 부문, 오후에는 e스포츠 부문으로 나누어 대면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총 91명의 학생이 참가한 e페스티벌은 정보경진 부문과 e스포츠 부문으로 구분된다.

정보경진 부문은 아래한글, 스마트검색, SW코딩, 인터넷검색,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로봇코딩 등 10개 종목에 43명이 참가했다.

e스포츠 부문은 모두의 마블, 팀파트택틱스, 키넥트스포츠, 클래식로얄, 스위치볼링, 폴가이즈 6개 종목에 48명이 참가했다.

한편 이번 대회의 각 종목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16개 팀은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2023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본선대회에 경북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장애학생의 정보화 능력 신장하고, 비장애학생과 함께 하는 e스포츠를 통해 장애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경산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에 박차!

(구)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장 학교복합시설 협의회 실시



경북교육청은 12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구)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장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구)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장 학교복합시설 추진 협의체는 경상북도교육청, 경산시청, 경산교육지원청, 한국교육개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협의회는 학교복합시설 추진계획 및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신청에 관한 실무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구)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장 학교복합시설은 총사업비 275억 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폐교부지를 활용해 학생들의 생존 수업과 주

민 건강 증진을 위한 수영장을 조성한다.

아울러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한 거점형 놀이센터와 다문화가정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센터, 메이커교육관 등 마을과 학교와 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구)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장에 조성되는 학교복합시설은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은 물론 다문화가정, 자녀 돌봄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학교, 주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마을의 거점 기반 시설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남교육청 "교육공동체·유관기관 함께 만드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

전남교육청, 학교폭력 예방·효율적인 대응방안 포럼 개최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7월 10일 순천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학교폭력 개선 방안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의 포럼 자리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자치경찰위원회·전라남도경찰청과 함께 마련한 이 포럼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전담경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역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이번 포럼은 교육공동체와 유관기관이 생활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수렴됐다.

이날 포럼에 참가한 순천항림중학교 손다민 학생과 이재연 여수중학교 학부모 회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

부도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김은미 경위님 "사이버 폭력 증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범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남 동부권에 이어 7월11일 무안군 삼향읍 소재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서부권역 포럼이 열린다.

박정애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관심이 많은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중배/기자

부산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 개최

지방 교육의 비전과 도전, 과제 공유하고 협력 방안 모색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3일 오후 2시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하윤수 부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3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시교육청,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대구시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해 열린다. 토론회는 미래 교육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지방 교육의 비전과 도전, 과제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도약하는 지방 교육, 미래를 향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는 하윤수 교육감이 나와 '꿈을 현

실로! 희망 부산교육'을 주제로 기초 강연을 한다. 하 교육감은 ▲학력 신장 ▲인성 교육 ▲교육격차 해소 ▲희망사다리 구축 ▲안전 및 소통 ▲미래 교육 등 부산 미래 교육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2부는 하윤수 교육감, 강은희 교육감, 류방란 원장의 대담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대담을 통해 부산의 주요 교육정책인 '아침체인지', '부산학력개발원 설립을 통한 학력신장' 등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미래 준비를 위한 교육정책 방향과 비전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향후 정책 수립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이번 토론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교육개발원 유튜브 채널(KEDI TV)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송진진/기자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유통 혁신

“올바른 유통위원회, 출범을 통한 유통 구조 혁신과 함께 수급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농협을 경쟁력 강화로 농 축산물 유통 대변화

조직문화 혁신

조직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경청'을 실천하고 창의적 생각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혁신

농업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농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지능화 등 디지털농업 강국 실현

제4회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주제 담은키비주얼공개,사전홍보박차

일러스트레이터 '세바스찬 큐리'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키비주얼 협업, 공개

서울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열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방향을 제시하는 키비주얼(Key visual)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사전홍보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아르헨티나 출신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그래픽 디자이너 세바스찬 큐리(Sebastian Curi)와 협업한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키비주얼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키비주얼'이란 행사나 작품 등에서 주요하게 사용하는 이미지·색상 등으로, 이번에 제작된 키비주얼은 이번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홍보·광고·굿즈 등에 전반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9월 1일~10월 31일 열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전시와 이벤트, 이미지로 폭넓은 시민 공감대를 얻기 위해 만화 같은 인물, 밝은 색상, 장난기 넘치는 구성으로 평범한 삶을 묘사하는 큐리와 협업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애플, 뉴욕타임스, 어도비, 나이키, 자라 등 세계적인 브랜드와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온 큐리는 지난 두 달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진행될 장소인 '열린송현녹지광장'의 개방감과 분위기에 걸맞은 이미지를 담아내기 위해 집중했다.

키비주얼은 축제 분위기가 연상되는 활기와 생동감 있는 콘셉트로 올해 행사 주제인 '땅의 도시, 땅의 건축'에 맞춰 땅의 관점에서 올려다본 사람의 모습을 그려냈다. 특히 '손'은 큐리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트레이드 마크로 건축물을 만들어 내는 사람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이미지를 그려낸 세바스찬 큐리는 "지난 몇 년간 출판물, 의류, 벽화 등을 통해 작품이 소개되어왔지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의 협업은 상상도 못했던 영역이자 나의 우주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땅(Land)'이라는 주제를 통해 서울이 가진 고유 요소와 정체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누구나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키비주얼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전부터 행사 기간 중 제작·발간되는 각종 그래픽, 사인물, 출판물에 적용될

예정인 향후 2D·3D 등을 활용한 홍보물 제작,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행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키비주얼 캐릭터를 활용한 모션 영상을 제작, 행사 주제를 함축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제4회 서울비엔날레 주제관 '하늘소'는 지난 5월 3일 개장한 뒤로 하루 1,500명 이상이 방문, 운영 50일 만에 누적 방문객 7만명을 넘어선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늘소는 7월 16일까지 관람 가능하며, 9월 1일 개막 이후 다양한 전시와 함께 다시 만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최초로 야외 공간에서 열려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행사가 예상된다"며 "활기찬 키비주얼을 통해 행사 주제와 의미가 시민에게 충분히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동해시, 청소년 행복페스티벌 '썸타는 축제' 열려

동해시가 오는 15일(토) 웰빙레포스타운에서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행복한 일상회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썸타는 축제'를 주제로 제2회 청소년 행복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년 동해시 청소년교육지구 사업 일환인 제2회 청소년 행복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별 연합축제로 진행되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놀 권리보장 등 응원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체험부스는 시설별 청소년수련관 외 3개 부스, 테마별로는 우리동네 탐험zone(동해시역사)과 돌고래 탐험 등 총 22개존이 운영되며, 댄스, 보컬 등 그간 갖고 있던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한마당 및 경사+예제+전경호, 슈퍼비+엔에듀케이티드키드, 우디 등 연인인 초창공연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며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소통하는 시민 대화합의 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선우 체육교육과장은 "올해 2회째 진행되는 청소년 행복페스티벌을 청소년 시설의 직영 화에 따라 연합축제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그동안 코로나19와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이원경/기자



경남도,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캠페인 추진



경남도는 일상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줄이기에 대한 시민 관심 및 실천유도를 위해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이란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 중단으로 착한 소비와 생산을 유도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슬로건이며, 환경부에서 지난 환경의 날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출범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우선, 1회용품 등 플라스틱 없는 경상남도 청사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과 청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바이바이플라스틱(BBP) 실천 서명운동을 한다.

부대행사로 제로웨이스트(Zero-Waste) 판업소토어를 함께 운영하여 포장재 없는 제품 및 친환경 제품, 녹색제품 등을 홍보하고 판매

"불필요한 플라스틱 이젠 안녕"

할 계획이고, 2022년 환경사랑 공모전 수상작 30점을 전시하여 불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잡자는 종이가방과 텀블러를 꺼워라!' 이벤트를 통해 집에 잠들어 있는 종이가방 또는 텀블러를 생분해성 칫솔과 친환경 주방세제로 교환함으로써 귀중한 자원을 재활용하는 기회도 마련한다.

아울러, 도민들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지구를 위한 10가지 습관을 실천하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에 인증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구를 위한 10가지 습관은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배달 주문할 때 안 쓰는 플라

스틱 받지 않기, △장바구니 이용하기,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내가 쓴 제품은 분리배출까지 책임지기 등이다.

또한, 13일에는 함안 강주해바라기 축제장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바이바이플라스틱(BBP)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플라스틱은 사회 전 분야에서 활용되는 유용한 소재이지만, 환경잔류미세화 등으로 가장 큰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지구를 위한 10가지 습관이 일상생활 속에 자리매김하여 '바이바이 플라스틱'의 친환경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장재현/기자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하고, JUMF 2023 즐겨요!"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JUMF 흥행 위해 티켓 답례품 제공

전주시가 고향사랑기부금을 후원한 후원자에게 한시적으로 공연 티켓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시는 오는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되는 'JUMF 2023'의 공연 티켓을 전주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한정 답례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JUMF'는 인디부터 오버까지, ROCK에서 HIP-HOP까지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최고 아티스트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로, 매년 여름 전주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특별 한정 답례품 제공은 시가 'JUMF 2023' 행사 주최사인 전주문화방송과 협조를 바탕으로 음악과 전주를 사랑하는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1월권 티켓을 한정 수량에 한해 특별 답례품으로 제공하기로 성사됐다.

이와 관련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후원자에게 현재 총 52종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산품과 가공식품 25종을 구비하고 있으며, 한옥마을체험권과 마담창극(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 전주에서 이뤄지는 100여 종의 전시·공

연을 관람할 수 있는 착한문화티켓 등 체험·체류형 답례품도 준비하고 있다. 또, 전주의 색을 담고 있는 공예품 등도 고를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는 역사와 문화, 전통과 맛과 멋이 흐르는 고장으로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JUMF 2023'과 전주 고향사랑기부제가 함께 도약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전주만의 색을 담은 답례품을 개발해 단발성 기부가 아닌 장기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송일/기자



사계절 축제가 이어지는 해남, 땅끝마을 여름축제 팡파르

해남군이 사계절 축제를 해남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한다.

해남군은 오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땅끝마을 송호해수욕장에서 송호해변 여름축제를 개최한다.

울창한 해수와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가 아름다운 송호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여름 축제에서는 인기가수들이 출연하는 축하쇼를 비롯해 불꽃쇼, 해변 가요제 등이 열린다. 또한 너른 백사장에서는 워터밤(WATERBOMB), 버블쇼, 서커스 공연 등도 이어지며, 놀이터와 주전부리 남만집 등이 운영되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름축제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해남군은 민선8기 산발적으로 이어져 온 축제를 계절별로 정착시켜오면서 축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송호해변축제를 대표 여름축제로 확대하여 여름철 관광활성화의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4~5월 개최된 달마고도 힐링축제와 어린이 공룡대축제는 대표 볼거리로 성공리에 개최되어 축제 브랜드를 전국에 알렸다. 달마고도 힐링축제는 전국 인기 여행객들의 성지로써 달마고도의 위상을 다시한번 확인했고, 올해 처음 개최된 해

남 어린이 공룡대축제는 곳은 날씨에도 2만5,000여명이 찾으며 차별화된 어린이 축제라는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송호해변 여름축제에 이어 가을의 초입인 9월부터는 매달 축제가 이어진다.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우수명 관광지에서 명랑대춤축제가 열리며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대표 캠프생지 오시아노에서 캠프 박람회 및 뮤직페스타가 개최된다. 특히 11월에는 3일부터 5일까지 해남의 축제이자 전라남도 대표 먹거리 축제인 해남미남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올해의 마지막이자 첫 시작을 맞는 겨울축제로는 유라시아의 시작인 땅끝마을에서 해남이 해맞이 축제가 열린다.

명현관 군수는 "민선8기 해남군은 코로나 등으로 산발적으로 이어지던 축제를 계절별로 정착시켜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표 콘셉트로 개발하기 위한 사계절 축제 브랜드화에 나서고 있다"며 "봄 축제를 통해 충분한 경쟁력을 확인한 만큼 사계절 축제를 통해 지역 유동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전했다.

최갑문/기자



인천시 부평구, 문화도시부평 '뮤직 플로우 사운즈 Vol.3' 진행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JUMF 흥행 위해 티켓 답례품 제공



인천시 부평구 문화도시센터가 오는 22일 오후 6시 부평역 북광장에서 '뮤직 플로우 사운즈(MUSIC FLOW SOUNDS)'의 세 번째 공연을 진행한다.

올해 5월부터 시작한 '뮤직 플로우 사운즈'는 다양한 야외공간을 찾아 부평의 장소와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공연이다. 이는 8월 부평아트센터에서 예정된 대규모 야외 축제 '뮤직 플로우 페스티벌'의 찾아가는 버전이다.

이날 시민들을 무대 앞으로 모이게 할 출연진에는 경쾌하고 기분 좋아지는 멜로디로 익숙한 뮤지션들이 참여한다.

▲'별빛이 내린다'라는 첫 소절만 들어도 모두의 합창을 가능케 하는 곡의 주인공 '안녕바다' ▲한국 음악계에 '로

커빌리 리듬'을 소개하고 일명 레트로풍의 음악으로 흥을 돋우는 '스트릿댄스' ▲라이브와 현장감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밴드 '극동아시아타이거즈' ▲장르의 경계를 자유롭게 오가며 밤에 음반보다 평단과 음악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기는 '솔루션스'까지 총 4팀이다.

이날 공연 장소인 부평역 북광장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선별 진료소 등의 이유로 덮여 있었던 장소다. 이번 공연을 통해 북광장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장소로 조성하고자 한다.

황유경 문화도시센터장은 "시민들이 음악소리를 듣고 북광장으로 모여 음악을 즐기는 것이 뮤직 플로우 사운즈의 목표"라며 "그 환호와 열기가 '뮤직 플로우 페스티벌'로 연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두 번째 공연이었던 '뮤직 플로우 사운즈 Vol.2'는 지난 6월 18일 인천 탁주 공장에서 지역 막걸리인 '소성주'를 마시며 즐기는 이색 포크 콘서트로 진행된 바 있다.

김종남/기자



섬이 그리는 대한민국

제4회



섬의 날

in 울릉도

울릉 최초의 국가 행사

2023. 8. 8. (화) ~ 8. 11. (금)

* 기념식 장소 : 사동항, 19:00

